

The background of the cover is decorated with several semi-circles in blue and black, arranged in a pattern that suggests a stylized landscape or abstract composition.

**시각
예술인을
위한
가이드북**

미술

주간

2017

2017 미술주간

시각예술인을 위한 가이드북

2017 미술주간 2017년 10월 13일 ~ 22일	[2017 미술주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명옥 / 사비나미술관 관장 운영위원 기혜경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주도양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교수 조상인 / 서울경제신문 문화레저부 차장		
[추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17 미술주간 조직위원회_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사무국]		
(사)한국미술평론가협회	황진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장		
(사)한국미술협회	양정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주간 총괄매니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홍익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주간 코디네이터		
(사)한국서예협회	장한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주간 코디네이터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최지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사원		
(사)한국조각가협회	심정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사원		
(사)한국큐레이터협회			
(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홍보·마케팅·출판]		
(사)한국화랑협회	오운(o-un), 비(B) 파운데이션		
[협력기관]	[홈페이지]		
국립현대미술관, (사)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www.artweek.kr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한국화랑협회,			
서울문화재단, (재)아름다운맵,	『2017 미술주간: 시각예술인을 위한 가이드북』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작에 도움을 주신 각 기관에 감사 인사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드립니다.		
[후원]			
법무법인 세종			
[미디어 후원]			
SBS			
[미디어 파트너]			
디자인프레스, 미술세계, 서울아트가이드,			
아트인컬처, 월간미술, 퍼블릭아트			
		4	서문
		8	작품 창작
		14	전시
		16	리서치
		19	공간 운영
		20	출판
		22	국제 교류
		25	지역 문화재단 창작지원
		38	자금 지원 TIP
	레지던시 RESIDENCIES	44	해외 레지던시 지원사업
		49	국내 레지던시 디렉토리
		62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
		75	소규모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짧은 에세이
	작품 유통 DISTRIBUTION	82	화랑 없이 작품 유통하기
		90	2017 작가미술장터
		92	기관 이용하기
		95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의 현주소
	복지 WELFARE	100	예술인 복지
		105	상생하고 충돌하는 예술활동과 파견사업
	계약 CONTRACT	110	시각예술 저작권의 이해
		115	시각예술 분야 저작권 문답
		120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이해
		130	[양식1] 저작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
		133	[양식2]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서문

〈2017 미술주간〉은 ‘미술은 삶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미술 행사입니다. 올해 〈2017 미술주간〉은 미술 작품을 만드는 미술가들을 다채롭게 조명하고자 ‘별별아티스트’라는 슬로건을 채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 작품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과는 너무 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미술가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만들어 낸 작품과 전시를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7 미술주간〉은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이 함께 공유하는 정보 플랫폼이자, 각 기관의 전시와 행사를 여러모로 홍보하는 채널을 지향합니다. 〈2017 미술주간〉 기간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의 국·공·사립미술관에서 무료 관람 및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일반 관객에게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 작품 보기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올해의 미술도시〉로 선정된 제주에서는 제주 지역 예술가가 참여하는 ‘예술가와 동행’ 외에 다양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2017 미술주간〉은 국내 미술계 국·공·사립미술관 및 비영리전시공간, 서울문화재단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전국 문화재단, 그리고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재)아름다운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한국화랑협회, 전국 6곳의 ‘작은미술관’과 미술전문지(미술세계, 서울아트가이드, 아트인컬처, 월간미술, 퍼블릭아트)가 협력하고 SBS, 디자인프레스,

법무법인 세종의 도움으로 개최됩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2017 미술주간〉은 올가을 풍성한 예술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2017 미술주간〉은 ‘별별아티스트’라는 슬로건에 맞춰 미술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기획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대학로 예술가의집을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 중견 작가 대상 포트폴리오 컨설팅, 아티스트 멘토링, 미술인 법률상담의 날,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강사진이 포진한 특강 등이 개최됩니다. 그 밖에도 〈2017 미술주간〉 기간 중 예술가의집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예술인 지원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1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7 미술주간: 시각예술인을 위한 가이드북』은 이번 행사의 슬로건에 맞춰 기획, 제작되었습니다. 공공기금,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지원제도와 작품 유통 및 복지, 계약, 그리고 저작권 등 시각예술인이 창작을 하고 활동 및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실용서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작가 여러분께 요긴하게 읽히길 바랍니다.

작품 창작
전시
리서치
공간 운영
출판
국제 교류
지역 문화재단 창작지원
기금 지원 TIP

기금 FUNDS

작품 창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시각예술)

시각예술 분야 차세대 예술가(창작자, 기획자)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다양한 창작 소재를 심층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제작하고 뛰어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격

- 만 35세 이하의 신진작가 및 기획자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단계별 과정을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자

[작가] 전시 1회 이상

[기획자] 현장경력 2년 이상

지원규모

선발인원 총 15명 내외 (창작 7명 / 기획·이론 8명)

[연구과정] 1인당 조사연구비 최대 200만 원 지급

- 전체공통과정 수강
- 일대일 멘토링
- 연구비 지원

[창작화 과정] 1인당 조사연구비 최대 300만 원 지급

- 일대일 멘토링
- 전시지원금(심화연구비) 지원
- 연구자료집 발간
- 작가: 전시개최 / 기획·이론: 심화연구, 연계전시 지원

유의사항

필수 제출서류

[작가] 작품 포트폴리오 1부

*작품 이미지 15개 이내 / 제공된 포트폴리오 양식에 작성 제출

[기획자] 최근 3년 내 연구논문 또는 전시기획서 (전시서문대체가능) 1편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팀 창작자과정 02)760-4668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시각예술) / 문래예술공장(다원예술)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최초예술지원

짧은 예술경력에 공공 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청년 예술인에게 데뷔 및 창작 기회를 제공

지원자격

공공 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예술인(단체)

[개인] (i) 39세 이하 예술인, (ii)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

[단체] (i) 전 구성원이 39세 이하로 이루어진 예술단체, (ii) 설립 10년 이하 예술단체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하는 사항에서 (i) 또는 (ii)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진 단체여야 함

*공공 지원금 수혜 판단 기준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검색 가능한 사업 기준으로 하되, 그 외 공공 지원금은 선정심사 과정에서 판단함.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지원」 등 재단이 정한 일부 사업의 수혜 경력은 허용함

지원내용

[창작 준비형] 세미나, 워크숍(공연), 낭독회(공연), 자료조사 등 창작을 위한 사전준비 비용

*워크숍 공연, 낭독 공연 등은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창작 준비형으로 지원함

[창작 발표형] 공연 등 창작물 발표 비용

*본 사업을 통해 1개 작품 이상 공연하되, 횟수나 기간에는 제한 없으며, 창작 발표형에는 창작 준비형에 해당하는 사전 준비 비용이 포함됨

지원규모

[창작준비형] 200만 원 *사상금 방식

[창작발표형] 500만 ~ 1,500만 원 *지원금 방식

유의사항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09, 0052 /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7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카데미(공예)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최초예술지원

공예 분야 청년예술가의 데뷔 및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생태계로의 진입 및 성장을 돕고, 공예상품의 자생력을 강화

지원자격

공공 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예술인

[개인] 39세 이하 예술인,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

[세부장르] 공예(금속, 도자, 섬유, 기타 공예 등)

* 전년도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 지원신청 불가

* 공공 지원금 수혜 판단 기준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로 검색 가능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그 외 공공 지원금은 심의진행을 통해 판단함.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수혜 경력은 허용함

* 데뷔는 첫 개인전 기준. 학위 청구전은 제외

지원내용

[창작활동비]

개인 창작활동을 위한 작품 제작비, 기획전시 등 창작물 발표 비용,
공예상품 개발을 위한 준비·시제품 제작 비용, 공예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비용, 공예분야 청년예술인 간 공동
프로젝트 등, 세미나, 워크숍, 연구모임 등 창작을 위한 사전 준비 비용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공동 창작실 제공: 신당창작아카데미 내 창작공방(총 5개실) 지원,
창작 역량강화 프로그램(사진,영상,창업/마케팅 등) 참여 기회 제공,
홍보 마케팅, 지원정보 서비스 등 제공

[결과전시 참여]

청년예술인(공예) 전시 참여기회 제공

* 신당창작아카데미 차년도 입주 공모 시 가산점 부여

지원규모

[창작활동비] 200만 원(정액) *시상금 방식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선착순 신청

[결과전시 참여] 연말 선정작가 결과보고 전시 협의 후 확정

문의

신당창작아카데미 02)2232-8833~8835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MAP(다원, 전통, 음악)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유망예술지원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창작자(단체)의
역량을 개발하고 음악/사운드, 전통기반 창작예술, 다원예술 분야
청년예술인(단체)의 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성장을 돕는 사업

지원자격

—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한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단체)

— 데뷔 혹은 설립년도 10년 이하의 청년예술인(단체)

* 직접 연출/안무/총괄 기획한 작품을 데뷔작으로 인정. 졸업 작품 또는 단순 참여(퍼포머, 스태프 등) 경력 제외

지원내용

[분야] 다원예술, 음악/사운드, 전통기반창작예술

[신작] 관객 대상 작품으로 발표한 적 없는 순수 창작물

[재창작] 기존 작업의 현격한 업그레이드 작품(각색/재구성) 혹은
연속성을 지닌 시리즈물

지원규모

다년간(2년간) 지원

[작품지원금] 1차 년도 700만 ~ 2,000만 원 (평균 1,500만 원)

[1차 년도]

— 인큐베이팅 (리서치, 멘토링, 세미나 등)

— 쇼케이스 형식의 작품 발표 (전시/공연/기타)

[2차 년도]

— 인큐베이팅 (크리틱)

— 1차 년도에 선보인 쇼케이스 작품을 발전된 형태로 재발표 및
레퍼토리화 발표

유의사항

— 재단 내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단체)는 지원 불가

— 동일 작품으로 타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 공연장 등)에
선정된 예술가(단체)는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33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99°C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유망예술지원

기존 작업에서 벗어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유망예술가를 대상으로 다년간(2년) 창작지원금 및 효과적인 작품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위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

지원자격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 또는 39세 이하 예술가

[분야] 시각예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예술가)

— 기존 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작업변화 및 도약을 시도하고자 하는 예술가

— 지원사업 참여 기간 중 신작 발표를 계획 중인 예술가

— 지원사업 전체에 참여 가능한 예술가

[필수조건]

— 1차 년도 단체전 참여 필수

— 2차 년도 서울 소재 공간을 확보하여 개인전(신작 포함) 개최 필수

지원규모

다년간(2년간) 지원

[1차 년도]

— 창작지원금(작품제작지원비): 700만 원

— 작품개발 지원: 전문가 크리틱, 1:1 워크숍, 세미나 등

— 단체전 지원(전문 기획자 참여): 전시장 조성, 홍보물 제작, 전문매체 광고, 작품 사진촬영 등

[2차 년도]

— 창작지원금(작품제작지원비): 700만 원

— 작품 사진촬영 지원

— 전문가 평가(리뷰) 지원

— 개인전 개최 시 홍보지원

— 통합도록 제작 지원

유의사항

— 재단 내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가(단체) 지원 불가

— 동일 작품으로 타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 공연장 등)에 선정된 예술가(단체)의 중복 지원 불가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8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창작공간 프로젝트 지원: 금천예술공장 ‘다빈치아이디어’

전문가 및 일반인의 기술 기반 우수 창작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개발·제작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제공

지원자격

전문가 및 일반인

지원내용

— 산업화 가능한 기술기반 '예술+기술' 아이디어(외부기술자 협업 가능)

* 분야 예시: 키네틱 아트/라이트 아트/미디어 아키텍처/사운드 아트/미디어 퍼포먼스/VR,AR/로보틱스/예술장르간 융복합 외

— 대상: 개발 아이디어의 구현기술력 보유 및 외부제작이 가능한 자(외부 기술자 협업 가능)

— 제작지원비

— 2017년 개발작품 발표 기회 제공 - 전시장 및 구성 지원

* 2016년은 제작지원 진행, 완성작은 2017년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비엔날레에 전시예정

— 산업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엔지니어/큐레이터 멘토링 기회 제공

— 가능 범위 내 일부 부품 및 기술 지원

— 추후 선정자 대상 공모 통해 해외 레지던시 및 금천예술공장 입주 지원 / 해외 초청, 수상 시 지원

지원규모

제작지원비 500만 ~ 2,000만 원(+2017년 전시 지원금)

문의

금천예술공장 02)807-4138

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큐레이터 개인 및 단체의 우수 전시기획안을 선정하여 전시 구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격

큐레이터 개인(팀) 및 단체

*지원신청자(단체의 경우 책임큐레이터)는 활동경력 5년 이상

지원내용

- 순수미술, 설치, 미디어, 융복합, 건축, 사진, 퍼포먼스 등 국내 시각예술 분야 전시
- 성과 확산을 위한 비평 및 학술 행사의 운영과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참여프로그램 등 연계 행사 개최 권장
- 모니터링 결과, 우수 전시의 경우 국내 순회전, 국제교류전으로 연계 지원 가능

*전년도 전시 사전연구 지원 선정자는 최종 평가 결과를 심의시 참고함

지원규모

전시 기획 및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지원

A급 7,000만 ~ 1억 원 내의 **B급** 5,000만 ~ 7,000만 원 내의

C급 2,000만 ~ 5,000만 원 내의

유의사항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시 도, 시 군 등 기초 자치 단체)
- 해당 사업에 국고(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를 받는 시각예술행사(전시 등)를 운영하는 단체
-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 선정 단체(중복지원 불가)
- 단,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사업 선정 단체에 속한 큐레이터가 독립적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전시는 신청 가능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의 전시, 공모전, 기획의도가 불명확하거나 관례적인 회원전 및 단체전, 졸업작품전
- 전시장소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인 사업

문의

시각예술부 061)900-2345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역량 있는 신진작가와 유망기획자에게 전시장 대관료, 홍보 및 인쇄비, 작품 재료비, 전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자격

[작가] 대한민국 국적의 순수미술작가 중 동 전시에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기획자]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시 기획 참여경력 1회 이상의 독립기획자 중 동 전시에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지원일 현재 미술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전시 경비 지원

지원규모

총 지원금액: 1,400만 원 내의

전시장 대관료, 인쇄료, 홍보료, 전시 구성비(작품재료비 포함) 등

전시 컨설팅 및 전문가 워크숍 프로그램 지원

유의사항

- 작가의 경우 개인전, 기획전의 경우 참여작가 2인(팀)이상 단체전
- 졸업전 학위청구전 초대전 불가
- 신진기획자로 지원한 자에게 작가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받는 단체전에 본인 작품을 포함시킬 수 없음
- 선정된 작가, 기획자는 서울시 내의 전시장을 확보하여 당해 4월 ~ 10월 사이에 전시(도록 제작 포함)를 종료해야 함

문의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대표 메일 semasinjin@seoul.go.kr

리서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 사전연구 지원

전시 지원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리서치, 조사연구 등 심화 과정을 지원

지원자격

큐레이터 개인(팀) 및 단체

*지원 신청자(단체의 경우 책임큐레이터)는 활동 경력 5년 이상

지원내용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다음 연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지원 사업의 사전 준비단계로 전시기획안의 사전연구, 기획심화, 워크숍, 리서치 등 전시 사전 연구 과정

지원규모

300만 ~ 1,000만 원

유의사항

사업 완료 후 전시 사전연구 성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실시

문의

시각예술부 061)900-23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

지원자격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및 단체

지원내용

—— 2019년 또는 2020년 진행되는 본 사업에 대한 2018년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실한 사업수행을 위한 리서치, 조사연구, 네트워킹, 워크숍 등 사전준비성 활동 지원

—— 세계 주요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 참여가 확정된 경우 이를 위한 사전 준비

—— 문화예술 국제기구 총회 개최 등 다년간 준비가 필요한 국제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지원규모

300만 ~ 2,000만 원

*사전준비성 사업수행을 위한 여비 등 직접 경비 지원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작성 시 중장기 기획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로드맵 포함 필수

—— 전년도 지원사업 중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의 경우 차기년도 지원 시 우선 고려(사업종료 후 필요시 프레젠테이션 실시)

문의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215

예술경영지원센터

프로젝트 비아

시각예술 매개 인력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한국 시각예술의 전략적 해외 진출, 한국 현대미술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자격

——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시각예술 매개인력

—— 에듀케이터, 출판담당자, 아키비스트, 홍보·마케터, 갤러리스트, 옥서니어, 아트 어드바이저, 아트 페어 전문가 등

*국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 2조 2항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자유형 단기 프로그램 참가지원] 매개인력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해외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 프로그램 참가지원 (5인 선정)

[협력기관 프로그램 참가지원] 센터와 사전에 논의한 해외 기관이 운영하는 우수프로그램 참가지원 (2인 선정)

[기획형 리서치]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 지원 (16인 선정)

[큐레이토리얼 워크숍] 국제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워크숍과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규모

해외 프로그램 참가 지원금 최대 600만 원

*항공 및 숙박, 해외 프로그램 참가비용 등

유의사항

—— 선정자는 사전간담회 및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가해야하며 리서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사업 기간 내 리서치 불이행 시 지원금은 반납 조치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공공지원기관의 지원이 확정된 경우 택일(중복지원 불가)

문의

예술산업진흥실 시각지원팀 02)708-2274

공간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의 연간 운영비용을 지원

지원자격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 전시공간(대안공간)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진 공간

지원내용

사립미술관 및 비영리 전시 공간 지원

지원규모

A급 8,000만 원 내외

B급 5,000만 원 내외

C급 3,000만 원 내외

D급 1,000만 원 내외

유의사항

——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영리 및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사립미술관은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및 대학 미술관, 영리 및 대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공간 등 지원 불가

문의

시각예술부 061)900-2345

출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창작산실 비평지원

시각예술 분야 비평을 주제로 하는 출판 및 간행물, 학술행사 등의 비평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최근 3년 이상 비평 전문 간행물을 발간해오고 있는 단체
-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평 활동을 하고 있는 비평가 개인 및 단체
- 최근 3년 이상 시각 분야 비평서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지원내용

[비평서 출판지원] 시각예술평론 및 연구 서적 출판

[비평 간행물지원] 정기간행물 발간 지원(온라인 매체 포함)

[비평 활동지원] 비평 세미나, 심포지엄 등 비평 학술행사 및 활동 지원

지원규모

신청사업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책정

문의

시각예술부 061)900-2347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 해외출판 지원

한국미술 담론서 및 이론서의 번역과 해외출판을 지원

지원자격

한국미술의 해외 출판을 준비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내용

[한국미술 담론서적 샘플번역 지원] 3건 내외 선정, 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한국미술 담론서적 번역지원] 2건 내외 선정, 건당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유의사항

- 표절원고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원고를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취소되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출판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책자가 출판되었음을 판권란에 로고와 함께 표기해야 함

문의

예술산업진흥실 시각지원팀 02)708-2274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분야 우수작가 작품집 발간지원을 통해 한국현대미술 아카이브를 활성화

지원자격

첫 개인전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작가

* 2002년 이전 첫 개인전 개최 필수

* 지원신청 주체는 작가이어야 하며, 출판사 명의의 신청은 불가

지원내용

당해년도 작품집 발간이 가능한 사업

작가 본인의 전 작품과정을 수록한 작품집 발간

지원규모

1,000만 원 정액 지원 *상금 방식

유의사항

- 내실 있는 작품집 발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출판사, 기획자, 평론가 등)와의 협업 권장
- 발간 시 ISBN 등록 필수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8, 0246

국제 교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해외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자격

예술가·예술단체 및 기획자

지원내용

해외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인의 현지참여 활동 지원

지원규모

[개인] 500만 ~ 1,500만 원

[단체] 1,000만 ~ 5,000만 원

* 항공료, 숙박비, 현지 레지던스 체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

유의사항

- 현지 레지던스의 초청장, 참가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 확정 후 대상 레지던스 프로그램 변경 불가

문의

시각예술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3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해외 창작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예술 창작 환경을 제공

지원자격

- 국제 주요 비엔날레, 페스티벌 등 행사에 초청이 확정된 자
- 현지 비자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영어나 현지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예술인

— 문예진흥기금 지원 조건에 동의하는 자

*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

지원내용

- 국제 주요 페스티벌 공식초청 및 기획 프로그램 지원 등
- 국제 비엔날레 본전시 초청 및 기획 프로그램 지원 등
- 아시아, 유럽, 북·남미 등 권역별 국가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국가별 예술위원회 연계 기획 프로젝트)

지원규모

2,000만 ~ 6,000만 원

* 작품제작비, 왕복 항공료, 체재비, 운송료 등 직접 경비 지원

유의사항

- 해외 주요 페스티벌 및 비엔날레 초청대상 여부 증빙 필수(초청장에 초청작품 및 초청 조건 필수 기재)
- 지원규모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의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2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국내의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 in residence)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들 간의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지원자격

시각예술 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계획 중인 단체 및 개인

지원내용

국제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최 지원

지원규모

2,000만 ~ 1억 원

유의사항

- 기존 문화동반자사업(ODA사업) 참가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조건을 협의하여 위원회와 약정 체결 후 지원

— 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획공모 프로그램으로서, 사업명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사업’임을 명기해야 함

문의

국제교류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2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격

시각예술 분야 예술인 및 단체

지원내용

다음 사업의 직접 경비 지원

-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교류 사업의 참가 활동
- 해외 저명예술인 초청 국내 교육연수프로그램
-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
-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행사 등
- 2015~2016년도 커넥션사업 사후 협력 프로젝트
- 국내외 개최 남북 문화교류 사업

지원규모

[전시, 비엔날레] 1,000만 ~ 3,000만 원

[공연, 페스티벌] 1,000만 ~ 6,000만 원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 300만 ~ 3,000만 원

*사업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추진 시 소요되는 예술활동 관련경비 지원(단체운영비, 임차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예술진흥재단 지원대상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문의

시각예술부 시각예술 분야 061)900-2348

지역 문화재단 창작지원

작품 창작 활동에 대한 작가에게 직접 지원되는 기금은 각 지역 문화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지역과 연고가 있는 작가들을 지원하지만, 지역 제한이 없는 기금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자.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시각예술

지원자격

- 과거 1회 이상 개인전을 수행한 작가 *학위청구 졸업전시 제외
-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혹은 기획단체), 과거 2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시각예술단체

*시각예술단체의 경우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 참여시 우대

*공간 및 단체는 연간 자체 진행하는 사업(기획전 및 개인전)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개인전] 작가가 2017년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개인전

[기획전/단체전] 기획자 또는 시각예술단체가 2017년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기획전 또는 단체전

*기획자가 진행하는 1인 작가의 전시는 기획전으로 지원신청

*단순 연례행사, 전시 없는 심포지엄·교육프로그램·세미나 등은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지원규모

[개인전] 500만 ~ 1,000만 원

[기획전/단체전] 1,000만 ~ 3,000만 원

*2016년 평균지원금: 개인전 650만 원 / 단체전 1,100만 원

문의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7218, 0246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 창작지원

지원자격

경기도 거주 작가

[신진작가]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개최 경력을 보유한 작가(만 40세 이하)

[기성작가] 작품창작과 발표를 최근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가

[개인전] 전년도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분야 선정작가

[중견작가 작품집 제작 지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작가

지원내용

— 신진작가 신작시리즈 창작지원

— 기성작가 신작시리즈 창작지원

—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전년도 전문예술 창작지원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지원규모

[신진작가] 700만 원

[기성작가] 최대 2,000만 원

[개인전] 최대 3,000만 원

[작가 작품집] 최대 1,000만 원

문의

문예진흥실 031)231-7233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기초예술 창작영역

지원자격

— 개인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산 활동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산 활동실적과 1회 이상 타 지역(해외 포함) 활동실적이 있는 부산활동예술인

*단,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부산 이외의 지역인 경우, 예술활동 무대가 부산이며, 현재 부산에서 활동 중이면 신청가능

— 단체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산 활동실적이 있거나 2회 이상

부산 활동실적과 1회 이상 타 지역(해외포함) 활동실적이 있는 부산소재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 시행년도 기준 전전년도 이내 설립단체는 지원신청불가(단체 설립일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무관함)

—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

—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한 단체 및 개인

지원내용

[미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활동, 미술행사, 평론집(지) 발간 등 지원

[사진] 사진작품 창작 및 전시활동, 사진행사, 평론집(지) 발간 등 지원

[영상] 영상(영화)제작활동, 영상(영화) 관련 행사, 평론집(지) 발간 등 지원

지원규모

[기초예술지원 A형] 소규모창작활동 지원

— 개인: 200만 ~ 300만 원

— 단체: 400만 ~ 800만 원

[기초예술지원 B형] 대규모 창작활동, 시민향유행사 등 지원

— 단체: 1,000만 ~ 2,000만 원

문의

예술지원팀 051)745-7239

대구문화재단

개인예술가창작지원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전문 예술인

*공고일 기준 국·공립단체, 상법인, 기관 등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재단으로부터 정기적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예: 재단소속 예술강사)

지원내용

— 시각예술 분야(회화 서예 판화 입체 설치 영상 사진 공예 건축 등)의

개인 전시회

— 시각예술 분야의 학술·연구·조사 발간 (학위청구용 및 기발표 발간물 제외)

지원규모

[개인예술가창작지원 I (만 36~50세)] 300만 원

[개인예술가창작지원 II (만 51~64세)] 300만 ~ 500만 원

문의

예술진흥팀 053)430-1242

대구문화재단

완숙기발표지원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의 전문 예술인

* 전년도 개인예술가창작지원사업 선정자는 지원신청 불가

지원내용

—— 각 예술 분야(회화 서예 판화 입체 설치 영상 사진 공예 건축 등)의

개인 전시회

—— 공간제공: 가창창작스튜디오 스페이스 가창, 범어아트스트리트

스페이스 I

* 희망자에 한하며, 선정 후 일정 조율

지원규모

500만 원, 공간 제공

문의

예술진흥팀 053)430-1242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자격

—— 개인의 경우 인천 연고 문화예술인 (인천 출생자, 인천 소재 학교 졸업자·재학자, 공고일 기준 인천거주자, 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 공공기관·기업 근무자 등)

—— 단체의 경우 공고일 기준 인천에 등록된 단체이거나 인천 소재 문화예술공간 (국,공립 시설 제외)이거나, 대표자가 위 인천 연고자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는 단체

* 인천에서 전년도에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증명되는 해당 분야 문화예술인, 단체

지원내용

개인전, 단체전

* ‘단체’의 연례적인 협회전, 정기전, 회원전의 지원을 지양. 단체가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회원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주제전으로 지원신청 가능

* ‘기획전’은 전시기획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시기획자 소개서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첨부

* ‘기획전’을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전시기획자 본인이어야 하며, 단체가 신청할 경우 단체 소속이 아닌 외부 기획자를 섭외할 수 있음

지원규모

[개인전] 최대 700만 원

[단체 또는 개인(기획자)] 최대 2,000만 원

문의

예술지원팀 032)455-7152~7156

광주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지원자격

—— 시각예술(미술, 사진) 분야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미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작가 및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우선지원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i)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ii) 회원수가 100명 이상으로 규모가 큰 문화예술단체

iii) 10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

지원규모

[개인] 300만 ~ 500만 원

[단체] 500만 ~ 2,000만 원

문의

문화예술지원팀 062)670-7444~5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창작지원

지원자격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지원규모

300만 ~ 500만 원

문의

문화예술지원팀 062)670-7444~5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예술창작·활동지원

지원자격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대전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예술인 및 단체
[개인] 최근 5년간 1회 이상 개인전시, 또는 3년에 10회 이상 초대전,
그룹전 실적이 있는 자

[단체] 최근 3년간 2년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내용

시각예술 분야의 작품 제작 및 발표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

[시각예술 A] 서양화, 한국화, 동양화, 판화

[시각예술 B] 설치, 입체, 공예

[시각예술 C] 서예(문인화, 전각 포함)

[시각예술 D] 사진, 영상, 시각디자인

지원규모

200만 ~ 2,000만 원

문의

예술지원팀 042)480-1034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육성지원

지원자격

[개인] 울산시에 2년 이상 거주중인 개인, 3년간 개인전 1회 이상 및 단체전
2회 이상 참여

[단체] 설립 2년 이상의 관내소재 단체, 최근 3년 2회 이상 단독 주최 및
주관한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내용

— 회화, 조소, 사진, 영상, 설치, 서예 등 시각예술 분야의 정기전, 기획전,
교류전 등 각종 전시회

— 울산시민 대상 시각예술 분야의 기획사업(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규모

[개인] 300만 ~ 800만 원

[단체] 500만 ~ 2,000만 원

문의

문화예술진흥팀 052)259-7912

울산문화재단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지원자격

최근 2년 이상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발표실적이 있는 자

지원내용

활동지원: 자료구입, 교육, 연수 등

책자발간 및 전시 공연등의 발표 지원

신진예술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워크숍 및 멘토링 진행

지원규모

500만 ~ 800만 원

문의

문화예술진흥팀 052)259-7912

세종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기초예술창작지원

지원자격

—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시각예술활동(개인전시회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

— 다른 시·도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으로서 세종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희망하고,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예술인

지원내용

한국화 서예 서양화 사진 회화(판화) 조각 공예 조소 디자인 영상, 조사연구 평론 등 시각예술 창작활동 및 전시활동, 시각예술행사, 조사·연구, 평론집(지) 발간 등 지원

지원규모

[개인] 200만 ~ 500만 원

[단체] 400만 ~ 800만 원

문의

지역문화진흥팀 044)864-9727

강원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지원자격

강원도 소재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 인정범위: 시·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문예술인이 80% 이상 정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그 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기타 인정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전문예술인 인정범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가입자,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개인전 최소 5회 이상 개최한 자, 공모전 추천·초대 작가, 장관상 이상 되는 경연대회 수상자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접수일 기준 강원도 소재), 최근 3년간 2회 이상 단독 주최, 주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동일 행사에 주최, 주관이 다를 경우 주관만 인정함

[개인] 개인작품 발표를 최근 3년간 1회 이상 개최한 자

지원내용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전시활동(기획전, 교류전, 회원전 등)

지원규모

[단체] 300만 ~ 2,000만 원

[개인] 300만 ~ 1,000만 원

문의

문예사업팀 033)240-1341

충북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지원자격

만 35세 이하의 예술인으로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연고의 예술가로 최근 5년 이내 활동 실적이 있는 작가(기획, 큐레이터, 평론 제외)

* 개인전시회 1회 이상 충북지역 내 개최

* 지역연고자는 충북출생자, 1년 이상 거주자, 충북소재학교 졸업생

지원내용

지원 유형: 전시

* 작품제작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대관 협조, 워크숍 및 장르별 멘토 컨설팅 지원원

지원규모

1인당 400만 ~ 800만 원 (12인 내외 선정)

문의

043)224-5603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자격

— 충청남도에 소재하거나 충청남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 충청남도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 미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 개인의 경우 2018년부터 격년제 시행

지원내용

[시각(개인)]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미술전시·행사·발간 등

[서예(개인)] 충남에서 진행되는 서예전시·행사·발간 등

[사진 영상(단체)] 충남에서 진행되는 사진영상전시·행사·발간 등

지원규모

300만 ~ 1,500만 원

문의

예술지원팀 041)630-2943

충남문화재단**신진예술가 지원****지원자격**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자 하는 만 35세 이하의 전문 예술(초·중·고·대학생 제외)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개인 전시회(학위 청구전 제외)를 개최했거나 3회 이상 전시에 참가한 자

지원내용

본인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 창작, 발표활동 등 창작 역량 강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

지원 규모

500만 ~ 1,000만 원 내외

문의

예술지원팀 041)630-294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구비한 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 회화(판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 사진 건축 설치 영상매체 평론 등

— 개인 공동창작집, 개인전, 단체전, 각종 공연물

— 장르가 결합된 통합적 예술 활동

지원규모

200만 ~ 2,000만 원

문의

문화사업팀 063)280-7462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신진예술가 지원사업****지원자격**

- 도내 1년 이상 거주, 40세 이하 예술인
-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단체전 5회 이상)

* 대학 재학 시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내용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영역의 개인 창작 발표 활동

지원규모

500만 ~ 1,000만 원

문의

문예진흥팀 063)230-7431

경남문화예술진흥원**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신작창작활동****지원자격**

- 경남지역 소재지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설립 3년 이상 연간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협의 단체 제외) 및 예술인
 - 3년간 도내 활동 실적 증빙이 되는 도내 거주 예술인(개인 신청자)
- * 개인지원 받은 자는 2년간 휴식년 적용 (예: 2015년도 수혜자는 2018년도 신청가능 / 2016년도 수혜자는 2019년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당해연도 신작창작 및 전시작품

* 신작창작 제작단계에서 최종 발표까지

지원규모

300만 ~ 1,000만 원

문의

문화사업부 055)213-8044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신진예술가지원사업****지원자격**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전업예술가
- 만 35세 이하 예술가
- 대학원생 및 당해년도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재정적 지원: 창작(작품제작) 활동 및 발표 지원
- 비재정적 지원: 멘토-멘티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해결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자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역량강화프로그램 등)

지원규모

— 개인 500만 ~ 1,200만 원

문의

생활문화청년예술팀 064)800-9163

제주문화예술재단**일반예술활동 지원****지원자격**

- [개인]** 최근 3년간 국내외에서 단체전 10회 이상 실적이 있는 예술인 또는 개인전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
- [단체]** 창립 전시회 후, 국내외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매년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사설문화공간은 개관 후 1년 이상 운영하고, 2회 이상 기획전 실적이 있는 공간

지원내용

[개인] 평면조형(회화 판화 디자인), 공간조형(설치 조소 공예 도예), 사진, 서예, 건축, 미디어아트, 컴퓨터아트, 행위예술 등

[단체] 평면조형(회화 판화 디자인), 공간조형(설치 조소 공예 도예), 사진, 서예, 건축, 미디어아트, 컴퓨터아트, 행위예술 등
시각 분야의 기획전, 회원전, 시각 관련 기획사업 등

지원규모

[개인] 300만 ~ 1,000만 원

[단체] 400만 ~ 2,000만 원

문의

예술창작팀 064)800-9154

본 책자에 실린 기금 정보는 2017년에 시행된 사업 공고 기준입니다. 지원 계획에 참고하실 경우 각 기금에 대한 당해년도 지원 시기 및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 TIP

기금 신청, 그 첫 단계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접수된 지원서 가운데 필수서류를 누락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맥북과 윈도우 충돌로 인해 첨부파일이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 전 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사전에 준비해둘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시공간을 사용하겠다는 확인서, 해외레지터스 참가확인서, 도록 출판계약서 등을 필수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의 CV, 혹은 포트폴리오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전시이력의 경우 리플렛 표지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서류를 최대한 많이 내는 것이 좋나요?

공모요강에서 요구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더라도 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상세히 적어야 할까요?

작업이나 전시 등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조사업자(기금 수혜자)가 지원금을 받아 해당기간 안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업내용이 현저히 바뀌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평가 받는 항목 중 하나가 사업의 실현가능성입니다. 작품 혹은 전시의 컨셉이 명확할수록 좋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인력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열망과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여도와 공적인 파급효과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금이란 공공의 세금을 통해 조성된 돈이기 때문에 사회적 확산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미리 작성하기 어려워요.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예산항목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짜거나 전액 1~2개의 항목으로만 예산을 분배하기보다는 항목별 상세한 근거로 예산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금은 해당사업에 대한 “직접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경비란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비로 재료비, 제작설치비, 홍보비, 도록제작비 등의 항목이 해당됩니다. 기타 운영비나 고정적인 인건비 등은 창작지원일 경우 직접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금을 신청할 기관과 각 사업별로 지원 가능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전시, 작품제작 등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운영비-일반수용비” 항목 안에서 수용 가능 합니다. 항공, 숙박 등의 지출은 “여비”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교통비, 숙박은 국내여비, 해외에서 사용한다면 국외여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전시 오프닝이나 회의에서 커피, 다과 비용을 지출할 경우는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항목에 해당됩니다.

사례비를 지급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보통 디자이너 사례비, 통역 및 번역 사례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정자인 보조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사례비 수령인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인을 받은 사례비영수증을 받고, 홈텍스를 통해 신고 및 원천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추후 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수령인의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자가 직접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나요?

선정자 본인 혹은 선정단체 대표나 소속인력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지원항목 규정을 확인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담은 필수인가요? 많이 책정할수록 뽐낼 확률이 높을까요?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조해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부담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총 소요액을 늘리는 것도 선정 될 경우 교부신청 시 신청당시의 규모에 맞추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기금으로 물품 구입도 되나요?

기금으로 자산취득이 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품제작 및 전시를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의 경우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임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페인트, 나사못 등 전시 설치를 위한 소모품의 경우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선정사업에서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면 담당자의 사전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문체부산하기관일 경우 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구요. 다른 부처 소속 기관이라면 같은 사업도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마다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기관의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기관에서 기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해년도 기금을 받은 실적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보조금으로 과거 기금 받은 내역에 대해 미정산 내역이 있다면 정산이 마무리된 후 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금은 이제 e나라도움을 통해 받아야 한다던데 전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금은 이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고 교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기금 신청하는 기관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기까지는 지원 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기금을 받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e나라도움 사이트에서 안내된 매뉴얼 등을 통해 시스템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레지던시 지원사업
국내 레지던시 디렉토리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
소규모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짧은 에세이

레지던시

RESIDENCIES

해외 레지던시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기획형)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발굴한 우수한 국외 창작거점 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새로운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예술가의 국제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사업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061)900-2215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지원자격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 (세부장르 제한 없음)
- 영어나 현지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정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 참여

[파견대상] 시각예술 분야 작가(1인)

[파견기간] 2019년 1월 ~ 2020년 12월 예정

지원규모

[작가 직접 지원]

왕복 국제항공료(1회): 예산 내 실비 지원

숙박비: 규정에 의거한 금액 지원

[협력기관으로 직접 지원]

프로그램 비용: €35,500 (€17,750 × 2년)

* 해당 지원 내역은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본 사업은 현지 주관처인 라익스아카데미에서 직접 서류 접수를 진행함

* 2019~2020년 참가모집은 2018년 1월경 라익스아카데미 홈페이지(www.rijksakademie.nl) 공지 예정,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라익스아카데미에서 인터뷰 등 절차 진행
* 2018년도 참여작가는 선정완료 되었음.

독일 베타니엔스튜디오

지원자격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 (세부장르 제한 없음)
- 영어나 독일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정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베타니엔스튜디오 창작프로그램 참여

[파견대상] 시각예술 분야 작가(1인)

[파견기간] 1년 (2018년 3월 ~ 2019년 3월 예정)

지원규모

[작가 직접 지원]

체재비: 규정에 의거한 금액 지원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료: 예산 내 실비 지원

[협력기관으로 직접 지원]

스튜디오 비용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가비: €22,800 (2017년도 기준)

* 해당 지원 내역은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심의를 통한 약간명의 후보 선발 후 베타니엔 측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함
- 후보자는 영문신청서와 포트폴리오 자료 등을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함(개별 안내)

영국 가스웍스

지원자격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 (세부장르 제한 없음)
-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정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가스웍스(Gasworks)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파견대상] 시각예술 분야 작가(1인)

[파견기간] 3개월 (2018년 4월 ~ 6월 예정)

* 현지 협력기관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작가 직접 지원]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료: 예산 내 실비 지원

[협력기관으로 직접 지원]

프로그램 참가비: £7,250 (2017년 기준)

* 해당 지원내역은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심의를 통한 약간명의 후보 선발 후 가스웍스 측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1인을 선정함

— 후보자는 영문신청서와 포트폴리오 자료 등을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함(개별 안내)

핀란드 HIAP**지원자격**

— 시각예술 분야 기획자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 영어나 현지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비자 발급 결정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핀란드 HIAP 큐레이터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파견대상] 시각예술 분야 기획자(1인)

[파견기간] 1개월 (2018년 10월 ~ 11월 예정)

* 현지 협력기관에 의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작가 직접 지원]

— 체재비: 규정에 의거한 금액 지원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료: 예산 내 실비 지원

[협력기관으로 직접 지원]

프로그램 참가비: €2,300 (2017년 기준)

* 해당 지원 내역은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심의를 통한 약간명의 후보 선발 후 HIAP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함

— 후보자는 영문신청서와 포트폴리오 자료 등을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함(개별 안내)

영국 테이트모던—인텐시브 프로그램**지원자격**

— 시각예술 분야 기획자 (갤러리, 미술관, 문화예술관련 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보유자)

— 영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정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런던 테이트모던 집중연수 프로그램 참여

[파견대상] 시각예술 분야 기획자(1인)

[파견기간] 1주일 (2018년 7월 예정)

* 현지 협력기관의 프로그램 주최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작가 직접 지원]

— 체재비, 숙박비: 규정에 의거한 금액 지원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료: 예산 내 실비 지원

[협력기관으로 직접 지원]

프로그램 참가비: £1,500 (2017년 기준)

* 해당 지원 내역은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심의를 통한 약간명의 후보 선발 후 테이트모던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함

— 후보자는 소정 양식의 영문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테이트모던 측에서 진행하는 인터뷰에 참여(개별안내)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에이스 피랄

지원자격

- 개인전 및 단체전 등 최소 1회 이상의 전시경력이 있는 시각예술 분야 작가 (세부장르 제한 없음)
- 영어나 현지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자, 비자 발급 결정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프로젝트 에이스 피랄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파견대상] 시각예술 분야 작가(2인)

[파견기간] 1개월 (2018년 11월 ~ 12월 예정)

* 현지 협력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작가 직접 지원액]

- 체재비: 규정에 의거한 금액 지원
-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왕복 항공료: 예산 내 실비 지원

[협력기관으로 직접 지원]

프로그램 참가비: 약 \$4,500 (1인, 2017년 기준)

* 해당 지원 내역은 협력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심의를 통한 약간명의 후보 선발 후 현지주관처에서 최종 2인을 선정함
- 후보자는 영문신청서와 포트폴리오 자료 등을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해야 함(개별 안내)

국내 레지던시 디렉토리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국내의 역량 있는 미술가 및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서울시립미술관의 지원프로그램으로서, 〈난지아트쇼〉, 〈비평워크숍〉, 〈난지글쓰기워크숍〉 등 전시 및 연구능력을 계발하는 프로그램,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 활용과 다원화된 교류를 위한 국제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국내의 미술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 등을 운영한다. 총 28개의 개인 창작 작업실이 있으며, 숙식이 가능하고, 쾌적한 작업공간에서 입주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해 24시간 개방되고 있다. 두 개의 원형전시실로 이루어진 난지갤러리(총면적 232m²)가 있다.



모집분야

시각예술 전 분야 작가 및 연구자 (미술비평 및 이론가, 독립큐레이터 등)

지원자격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 타 레지던시 참여기간이 입주기간과 중복되지 않고 개인정용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

[연구자] 미술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

입주기간

1년

모집인원

총 19명 (미술작가 17명, 연구자 2명)

시설

스튜디오A(17실) / 스튜디오B(8실) / 난지갤러리 / 야외작업장(총면적 72m²)

금천예술공장

2009년 10월 서울시 컬처노믹스 사업의 일환으로 금천구 독산동 옛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서울문화재단 산하 시각예술 전문 창작공간이다. 19개의 스튜디오를 비롯해 워크숍룸, 미디어랩, 창고동작업실, 샤워실, 세탁실 등이 완비되어 있다. 레지던시뿐만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국제심포지엄도 운영한다.

**모집분야**

[국내] 시각예술, 뉴미디어, 지역커뮤니티 **[국외]** 시각예술, 뉴미디어

입주기간

[국내] 12개월 *2017년만 17개월 운영 **[국외]** 3개월

모집인원

[국내] 12팀 내외 **[국외]** 14팀 내외

시설

스튜디오 대(大): 개별창작공간, 책상, 의자, 침대 보유 / 스튜디오 소(小): 개별창작공간, 책상, 의자, 침대 / 미디어랩: 영상전문장비 설치된 녹음 영상편집 작업 공간-Mac Pro, HD 캠코더, 스탠드평면 TV, 헤드셋, 비디오믹서, 카세트 레코드, 휴대용 녹음기, 빔프로젝터 / 창고동 작업실:

대형 작업공간-조명, 5톤 호이스트, 작업대, 온수기 및 싱크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광역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해안동의 개항기 근대 건축물 및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조성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한다. 창작스튜디오, 공장,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분야**

시각예술, 연구·평론(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및 전술 활동가)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 국내외 타 레지던시 참여기간이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자

입주기간

[국내] 11개월 **[국외]** 3개월

모집인원

총 30명 내외

프로그램

[창작지원] 프리뷰전, 오픈스튜디오, 공연, 협업 프로젝트(입주 작가 2팀 이상 협업하는 프로젝트), 플랫폼 살롱(입주 작가 프레젠테이션)

지역 연구 리서치(강연, 투어),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타장르)

[홍보 지원]

[창작공간 지원] 스튜디오 또는 게스트 룸 1실, 공동 작업 공간, 미디어랩실, 아카이브 공간 등

경기창작센터

경기창작센터의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를 위한 창작레지던시와 큐레이터, 이론가를 위한 연구레지던시로 구성된다. 입주작가들을 위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레지던시의 결과물은 기획전시, 공연, 오픈스튜디오, 출판물 등을 통해 발표된다.



모집분야

시각예술 회화 조각 영상 뉴미디어 건축 디자인 사진 큐레이팅 평론

지원자격

[창작레지던시] 현대미술 전 분야와 포함되지 않는 혼합매체와 기타 장르도 지원 가능

[연구레지던시] 큐레이터, 공연예술기획자, 평론가, 타 분야 연구자

입주기간

[창작레지던시] 국내 작가 단기 6개월, 장기 1년, 해외작가 3개월

[연구레지던시] 국내 연구자 6개월, 해외 연구자 3개월

모집인원

총 17팀(명) 내외

시설

부지면적 54,545m², 건물면적 16,225m²에 달하는 총 7개 동의 건물로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2009년 1단계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중앙동, 숙소동, 작품창고동이 완비되었으며 총 28개의 스튜디오를 갖추게 되었다. 2차 리모델링(2012년 완공)을 통해 36개의 협력스튜디오 및 공방, 전시실, 교육 공간, 다목적 홀을 갖추고 있다.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777레지던스는 양주시립미술관이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옛 모텔 건물을 활용하여 창작공간을 조성한 재생프로젝트로 2013년도에 개관하였으며 회화, 사진, 복합매체 작가 각 7명씩 총 21명의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릴레이개인전,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기획전시 등의 입주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모집분야

시각예술 및 평론

지원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입주기간

1년 (1년 연장 가능)

시설

전시실 / 개인 제공 창작공간(14실)

프로그램

릴레이개인전, 타장르 예술가와의 만남, 비평워크숍, 오픈스튜디오,
주제기획전, 시민 및 지역 연계프로그램, 국내 및 국제교류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국내의 역량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미술관 내 숙식이 완비되어 있는
창작공간에서 1년간의 창작 활동과 개인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분야**

회화, 조각, 설치 등 현대미술의 모든 장르

지원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만 30세 이상의 작가

입주기간

1년

시설

주거복합형스튜디오 72.6m²(1실), 49.5m²(1실)

프로그램

개인전 개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 창작을 위한
레지던시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소통 교류의 플랫폼 제공을
통해 입주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모집분야**

순수 시각예술 전 분야

지원자격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순수 시각예술가

입주기간

1년

시설

전시실: 32평, 14평 / 예술서적 학습관: 예술서적 1,500권, 컴퓨터 2대 /
다목적실: 13평, 층고 3.3m / 스튜디오: 3실, 10평, 층고 3.3m / 작업실:
3실, 침대, 매트리스, 책상, 의자, 작업대, 작업의자 구비 / 미디어실:
27형 iMAC 2대, 레이저 컬러프린터, 스캐너, 스피커, 헤드폰 구비 /
공동작업실: 작업대, 3D스캐너, 3D프린터, 에어컴프레서, 커팅기, 고성능
빔프로젝터 3대, 기본 공구세트 / 주방 / 식당 / 샤워실 / 세탁실 /
옥상(약 143평)

프로그램

[작가지원] 오픈스튜디오, 입주작가 개인전, 아티스트 토크, 전문가
매칭(시각예술 관련 이론, 기술분야 전문가의 입주예술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 리서치 프로젝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중학생 대상)

창작센터 투어 및 시각예술 진로체험 교육), 아트Go 창작高 프로젝트(시각예술 전공
고등학생 대상 작가와의 만남 및 집중 체험 교육), 청년예술가 데미어룸캠프(미술대학생,
청년예술가를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

국내 유일의 도자전문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도자 분야 외에도 국내외
역량 있는 시각예술 작가를 대상으로 4개월 단기 프로그램과 10개월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시, 학술, 워크숍, 교육, 건축도자 프로젝트
등 미술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모집분야

도자, 조각, 설치 및 기타 시각예술 분야

지원자격

개인 및 2인 이내 그룹

입주기간

4개월 / 3개월 / 10개월

시설

공용스튜디오 / 목·철공실(66m²): 재단기, 각도절단기, 연마기, 에어건,
전기드릴, 이동식공기압축기 등 / 소성실·시유실: 227m², 가스가마2대,
전기가마3대, 시유용스프레이부스, 개수대 / 실험실(97m²): 진공토련기,
롤러분쇄기, 점토혼합기, 전기믹서기, 전자저울, 유발기 등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세미나·강연·워크숍, 작가와의 대화, 지역연계 프로그램

레지던시 그룹전 개최, 개인전 지원

[기타 교육체험 프로그램]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 기획하는 전시, 학술, 교육, 국제교류 및
건축도자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진행

유의사항

관리비 월 10만 원(전기 수도 인터넷 가스 냉/난방비 포함)

작품 소성시 소정의 소성비 있음

금호창작스튜디오

40세 이하의 신진 시각예술가들을 대상으로 1년간 주거복합형
스튜디오와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분야

평면, 입체, 다중매체 등 시각예술 전 분야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하의 국내외
거주 미술작가

입주기간

1년

시설

개인스튜디오: 주거복합형 14평 / 휴게공간 / 샤워실 / 인터넷

프로그램

전시, 비평워크숍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STUDIO M17

시각예술가를 대상으로 장기와 단기 입주작가를 선발하여 창작공간과 숙소를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작가의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모집분야

시각예술

지원자격

만 25세 이상 개인 및 그룹

입주기간

1년 5개월

시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인/팀 1실 창작공간 / 카페 / 미디어텍 / 회의실 / 세미나실 / 강의실 / 레코딩 스튜디오: 방음시스템, 75인치 터치 전자칠판, 방송 프롬포터, HDV급 캠코더, SD급 캠코더, 크로마키 전동 스크린, HDV 비디오 레코더, 영상편집프로그램 등 구비. 사전예약 필수 / 스튜디오 내 거주 개인별 6평 원룸 제공, 침대, 부엌, 옷장, 세탁기, 에어컨, 욕실 구비

프로그램

세미나·강연·워크숍: 작가 프레젠테이션

입주작가 릴레이개인전

입주작가와 이론가의 1:1 매칭프로그램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작가 개개인의 작업환경을 조성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이와 병행한 아티스트 릴레이 프로젝트, 공동워크숍, 지역, 외부전문가, 스튜디오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입주작가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브릿지 프로젝트, 오픈스튜디오 및 시민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분야

회화 조각 사진 영상미디어 설치 미술평론 등 시각예술 전분야

지원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국내외 미술작가

입주기간

3개월 / 6개월 / 1년

시설

주거복합형 스튜디오 16평형, 개인별 침실, 주방시설, 화장실 구비 / 교육전시실 3개실 / 교육실 / 옥외 작업장

프로그램

아티스트릴레이프로젝트(개인전), 세미나·강연·워크숍, 시민연계프로그램, 공동워크숍(외부 전문가 초청 작가 설명회), 국제교류프로그램, 브릿지프로젝트(입주작가들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타지역, 외부 전문가와 작가, 스튜디오와의 연계 프로젝트)

유의사항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본인 부담

가창 창작 스튜디오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창작활성화 및 예술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지역 유일의 현대미술창작공간으로, 우록분교 폐교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창작공간인 스튜디오와 전시공간인 스페이스 가창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모집분야

평면, 입체, 영상, 설치, 뉴미디어 등 순수미술 전 분야

지원자격

선정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40세 이하의 국내외 거주 미술작가

입주기간

1년

시설

냉·난방시설 설치된 개인별 스튜디오 1실(약 10여 평/약 20여 평)
공동시설(야외작업장, 휴게실, 숙소, 취사장 등)

기타

창작 지원금 30만 원/월

예술지구 P

드로잉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작가들을 매년 4월에 선정한다. 여기서 드로잉이란 작가가 생각하는 최초의 개념과 그 시작 또는 과정을 말하며 모든 장르(미술, 건축, 공예, 사진, 무용, 영화, 문학 등)의 에스키스에서 텍스트, 기호, 모형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선정 작가들은 입주기간동안 작업공간과 점심식사를 비롯한 여러 시설을 지원받는다.



모집분야

미디어아트, 사진, 회화, 드로잉, 설치 및 조각, 만화, 건축, 무용, 패션, 문학 등의 예술가. 드로잉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작가를 우선 선발

입주기간

단기 5개월, 장기 10개월

지원사항

주거 복합형 스튜디오(6실) / 공동 스튜디오(1실),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제공, 점심 제공 (월~금) 토일 공휴일 제외, 공동 부엌 제공, 2개의 전시장(면적 85m², 183.03m²), 워크숍 및 전시행사 지원, 레지던시 결과 보고전 도록 제작 및 국내외 관련기관 배포, 지역 네트워크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입체작업 장비 제공(드릴, 직소, 용접기, 그라인더 등), 대형 이마콘 필름 스캐너, 엡손 디지털 출력 시스템, 포트폴리오 및 전시작품 출력 지원, 각종 촬영 조명기기 및 포토 스튜디오 사용 가능, 합주실, 녹음실 사용 가능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

1

라익스아카데미(네덜란드)

2015년 1월 ~ 2016년 12월

유노아

레지던스 기관 소개

라익스아카데미는 세계 각국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좋은 작업 환경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인데 이름에 ‘아카데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공간이 원래는 몬드리안(Piet Mondrian)이나 카렐 아펠(Karel Appel) 등을 배출한 국립 미술학교였기 때문이다. (‘라익스Rijks’는 ‘국가의’, ‘국립의’ 따위를 의미하는 네덜란드 단어다.) 80년대에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기관의 성격이 바뀌지만 그 이름만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현재도 네덜란드에서는 단순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아닌 포스트 아카데미 인스티튜션으로 여겨진다. 그 이름에 걸맞게 작가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강의, 워크숍 등)과 도움이 제공되고, 기간 역시 총 2년이나 되는 장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작가활동을 한 작가들인데, 라익스아카데미 웹사이트의 소개에 따르면 지원자들은 대개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고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작가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선발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작가의 성취도나 발전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일단 선발이 되면 작가의 작업방식과 상황에 따라 작업실과 숙소가 배정되는데, 각각의 작업실과 숙소는 그 크기와 위치가 다 다르다. 보통 1년차에는 비교적 작은 작업실을 배정받고 2년차에 더 큰 작업실로 옮겨가게 되는데, 숙소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원한다면 계속 같은 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숙소는 기숙사같이 다함께 모여 사는 형태가 아니고, 암스테르담 시내 곳곳에 있는 집에서 각자 사는 것이다. 사는 지역이 다르므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다른데, 사실 암스테르담은 서울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라 암스테르담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는 지역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반 고흐가 살았을 법한 아주 작은 네덜란드 전통 가옥에서 살았고, 2016년 현재는 내부가 현대적으로 리모델링된 비교적 널찍한 집에서 살았다. (이 집은 ‘카렐 아펠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라익스 아카데미 출신 카렐 아펠이 살았던 곳이다) 라익스아카데미는 집 구하기 뿐 아니라 암스테르담에 서류상으로 등록하는 것 역시 도와준다. 거의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주고, 등록하는 방법까지 아주 잘 안내해주는데,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적 업무는 끝난다.

라익스아카데미에는 배정받은 개인 작업실 외에 다수의 공동 작업장이 존재한다. 목재, 금속, 도자기, 페인팅, 판화, 컴퓨터 프린팅, 3D 프린팅, 전자기계, 영상 편집, 음악 작업 등 작가가 원한다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 각각의 작업장에는 우수한 능력의 테크니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근무하는 날짜와 시간에 약속을 잡고 만나는 방식이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각각의 공동 작업장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므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식당과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있는데,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만 일반 도서관 외에 아주 오래된 책이나 시각자료들을 따로 모아놓은 수집물 창고가 있는데, 레지던트 아티스트들은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도서관 관리자의 허가를 받고 열람할 수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라익스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연말에 하는 오픈 스튜디오다. 한 해 동안의 작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오픈 스튜디오가 끝나면 1년의 프로그램이 전부 마무리된다. 오픈 스튜디오는 5일간 열리는데, 처음 3일간은 일종의 프리뷰기간으로 이때는 예술계 종사자, 언론 및 VIP들이 방문하고 나머지 이틀은 일반인들이 방문한다. 일반인 오픈 날에는 라익스아카데미 건물 앞으로 길게 줄이 늘어설 정도로 방문자가 많다. 2016년에는 방문자가 특별히 더 많아서 오픈스튜디오 기간에 8,000명 이상이 방문했다고 한다.

이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전시 기획자들과 연결되고 판매도 이루어진다. 나 역시 2015년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큐레이터를 통해 이듬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인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을 구입한 컬렉터의 초청으로 컬렉터의 집과 그의 컬렉션에 방문하기도 했다. 낯선 곳에서 누구와도 아무런 접점이 없어 작가로서 활동하기 어려울 때, 오픈 스튜디오는

자기 작업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작가 본인의 작업을 각국에서 온 재능있는 작가들과 나란히 덩으로써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라익스아카데미는 오픈 스튜디오라는 최종 이벤트가 있기까지 작가들의 작업이 재정적, 물리적인 큰 제한 없이 계속해서 행해지는 꿈같은 공간이다. 작업실, 작업비용과 더불어 생활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과정에서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작가 맞춤형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작가들에게 조언을 주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써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레귤러 어드바이저와 특별히 방문하는 게스트 어드바이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방문 스케줄이 공지되면 원하는 어드바이저를 선택해 스케줄을 잡는데, 약속된 시간에 작가의 작업실에서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작가나 큐레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대는 다양한 편이다. 작업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을 때 이런 대화 시간은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어드바이저와의 만남은 작가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가끔은 기관 측에서 작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고 특정 어드바이저와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한다.

라익스아카데미에서 주선하는 어드바이저 외에 누군가 만나고 싶다면 어드바이저로 초청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물론 일정이나 위치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비교적 더 많다. 그렇지만 나는 운 좋게도 내가 만나고

싶었던 독일 작가 토마스 샤이비츠(Thomas Scheibitz)와 만날 수 있었다. 그 만남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는데,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여기에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픈 스튜디오나 어드바이저 미팅 같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라익스아카데미에는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함께 수학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여행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있는 머무는 2년 동안 라익스아카데미 작가들은 네덜란드의 작은 섬에서부터 멀리는 아테네와 이스탄불까지도 다녀왔다. 대부분의 비용을 기관에서 부담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행 중에는 현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거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이벤트에 참가하기도 하고, 동행한 어드바이저의 강의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 외 당일치기 견학 같은 것은 종종 있다.

라익스아카데미에서는 작가에게 네덜란드 내에서 지원해 볼 만한 예술대회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나도 소개를 받고 Buning Brongers Prijs에 지원해서 수상자로 뽑히기도 했다. (6명의 수상자들은 상금과 더불어 도록이 출간되고 암스테르담에서 3주가량 그룹전을 갖는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의 컬렉터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행사라든가,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는 행사 등 작가들에게 필요할 법한 것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물론 반드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다 보면 정작 작업에 소홀해질 수도 있으므로 작가는 자기 스케줄을 잘 관리해야 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암스테르담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서울의 3분의 1정도로 작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삼는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보다 자전거가 더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자전거가 많다. 자전거도로가 매우 잘 깔려있어서 자전거만으로도 웬만한 장소는 다 갈 수 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기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게 추천한 것이 자전거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었다. 중고 자전거 매매가 활발하므로 자전거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역시 중고는 고장나기가 쉬우므로 잘 따져보고 사야 한다. 사람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자전거를 탄다. 나 역시도 매일 자전거를 탔다. 다행인 것은 비가 자주 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하면 건조한 편이라 비에 젖은 옷이 금세 마른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싫다면 트램이나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잘 조직되어 있어서 이동하기에 편리하다. 도시 내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갈 때도 매우 편리하다. 대중교통이 서로 잘 연계되어 있고 공항도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전혀 못 해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인종차별 역시 거의 없는 편이다. 무역업을 하던 전통 때문인지 내가 만났던 현지인들은 대부분 개방적이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다. 내가 읽었던 책에서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직설적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런 것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물론 불쾌하게 구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투가 직설적이기 때문은 아니었고, 오히려 대부분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단어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어쩌면 내가 주로 라익스아카데미 내부의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네덜란드 음식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특별히 내세우는 음식도 없고, 대부분 음식이 특징이 별로 없다.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맛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음식들을 주로 먹는다. 그런데도 평균 신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키는 무관하다는 불공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평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네덜란드 남자 평균 신장이 184.8cm라고 하는데 평균 키보다 큰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나. 처음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죄다 너무 커서 마치 내가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라익스아카데미의 큰 작업실에 금방 익숙해지듯이, 지내다 보면 그런 것은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된다. 한국음식을 먹고 싶다면 한인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해 요리해 먹으면 된다.

흔히들 성매매와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암스테르담을 환락의 도시라고 부르곤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런 명칭은 과장된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합법이라고 해도 모두가 대마초를 피고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을 범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을 즐긴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그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다.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홍등가(red light street)는 관광객들이나 한 번씩 들러서 어떤지 구경하고 가는 장소로 그 규모를 보면 귀여울 정도다. 대마초 역시 편다고 하더라도 암스테르담에서는 일반 담배 같은 느낌이라 특별히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지 못한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이 시대에 다시 〈쾌락의 동산〉을 그린다면 조용한 암스테르담보다는 오히려 홍대나 이태원을 더 많이 참고할 것 같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일이 복잡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지원서가 그러하듯 본인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파일 몇 개와 간략한 작업소개만 있으면 된다. 특히 라익스아카데미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쉽게 지원서를 보낼 수 있다. 나 역시 창문도 하나 없던 과거의 작업실에서 지원서를 보냈었던 기억이 난다.

처음 지원서를 보낸 후, 몇 년이 거짓말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고,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든 과정을 마친 지금, 나는 그 시간들의 가치를 잘 알기에 한국의 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소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지원하는 것부터가 스스로 본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이 프로그램에 눈길이 간다면 관심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지원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유노아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2010년 서울 브레인팩토리, 2013년 서울 살롱 드 에이치, 2016년 브뤼셀 컴포짓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Hello Stranger〉전, 2014년 두산갤러리의 〈구경꾼들〉전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1년 교양스튜디오, 2012년 난지스튜디오, 2015~2016년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종근당 예술자상과 Buning Brongers Prijszen을 수상했다.

2

테이트 인텐시브(영국)

2016년 7월 4일 ~ 7월 8일

김윤서

레지던스 기관 소개

테이트(Tate) 산하에는 총 네 곳의 미술관—테이트모던(Modern), 테이트브리튼(Britain), 테이트리버풀(Liverpool), 테이트세인트아이브즈(St Ives)—이 있다. 그 중 테이트모던을 중심으로 진행된 본 워크숍 테이트 인텐시브(Tate Intensive)는 테이트모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템즈 강변에 위치한 테이트 브리튼, 총 두 지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콘텐츠 구성면에서도 테이트 소속의 우수한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강의 및 인솔을 주도하였다. 테이트 인텐시브는 주디스 네스빗(Judith Nesbitt)이 디렉터로 있는 테이트 국제 및 국내 프로그램 팀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팀원인 에밀리 비글리아(Emily Vigliar)가 PM으로 전면에서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퍼블릭프로그램 위원장 마르코 다니엘(Marko Daniel)과 팀원들도 협력해 비중있게 운영되었다.

아르코 웹사이트에서 테이트 인텐시브 공지를 보고는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에 반신반의하며 지원서를 제출한 지 보름만일까. 국내 지원자 서류 합격 소식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트 측으로부터 직접 최종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받았다. 담당자와 사전에 이메일로 스카이프 인터뷰 시간을 정하고, 저녁 무렵에 모니터 앞에서 면접관 2명을 마주했다. 미리 제출했던 이력서와 한국에서의 업무 이력,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2016년 1회 테이트 인텐시브의 대주제인 ‘Making Tomorrow’s Art

Museum’에서 파생되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영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모니터를 통한 면접이었지만, 상대방의 따뜻함과 편안한 기운이 전해져 면접이라기보다는 30여 분간의 티타임과 같은 대면이었다. 나중해야 나눈 이야기지만, 심사를 진행한 직원들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부터 아프리카까지 분포된 많은 지원자들과 화상 면접시간을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테이트 인텐시브 팀은 전세계 기관 네트워크에 오픈콜을 보내 각 국가의 지원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았고, 최종 15개국 30명의 미술 전문인이 선정되었다. 비자 문제로 결국 참여하지 못한 한 명을 제외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29명의 참가자들의 면면은 2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경력 2년차 큐레이터부터 디렉터까지, 대형 기관 소속 큐레이터는 물론 소규모 신생 기관 디렉터, 에듀케이터, 홍보담당자, 비엔날레 운영진, 갤러리스트까지 다양했다. 운영팀은 사전에 최종 참가자들의 사진과 이력을 담은 리스트, 요일별 주제와 세부일정, 초대강사 정보를 배포해 주었고, 소주제별 미리 함께 읽으면 좋을 책과 논문 등을 추천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 만남 전,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도, 운영팀은 워크숍 준비와 진행 과정을 열어놓고 참가자들과 함께 밀도있게 채워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 활동

2016년 첫회는 ‘Making Tomorrow’s Art Museum’이라는 대주제 아래, 5일간 요일별 소주제워크숍과 기관/전시 답사로 매일의 일정이 말그대로 ‘인텐시브’하게 구성되었다. 테이트모던 신축 건물의 한 개 층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주제별로 테이트 소속 직원들이 초대되어 함께했는데, 그

외에도 Plus Tate라 불리는 테이트 연계 시각예술 기관의 전문인, 주요 이론가/교수, 작가 등이 강사로 함께해주어 테이트 뿐 아니라 영국 전체를 아우르는 런던 밖 지역 미술관들의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다.

그간 한국에서 경험해온 강의 발제 중심의 연수와는 달리, 초청 강사는 발표 비중을 줄이고 논의점을 제공하는 역할로만 기능했다. 예로, 주제별 2시간의 워크숍의 경우, 강사 프리젠테이션은 고작 8분에 그치고, 강사와 함께하는 그룹 토론이 1시간 30분 이상 이어졌다. 참가자 30명이 동시에 토론하기 어려운 경우 5~6명씩 조를 짜서 토론을 이어갔는데, 그러한 소그룹의 구성원은 매회 바뀌어 기간 중에 결국 모든 참여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또한, 개개인이 관심 워크숍을 사전에 표시해 해당 시간에 참가자가 초대강사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거나, 자신의 시각으로 총평하며 해당 워크숍을 참가자가 매듭짓는 식으로 진행했다. 결국 개개인의 발언 기회와 참여도가 무척이나 높아 참가자들은 충분히 자신이 속한 기관을 홍보하고, 업무 내용을 교환하는 등 전세계 각 미술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던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미술관의 교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는 테이트 Leaning Team의 팀장 뿐 아니라 팀원 전체가 함께 나와 각자의 위치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각각 짧은 브리핑으로 공유해주었다. 미술관 교육과 관람자의 변화 양상을 서로 질문하며 의견을 나누는 중에 미술관에서 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체감했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대화 방식에서 남녀노소,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반가웠다. 미술관의 공공성과 관람객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는 테이트와 같은 대형 미술관의 이야기보다는 미들즈브러나 맨체스터의 지역 미술관 디렉터의 발표를 통해 지역 미술관 운영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제한된 예산, 온라인 홍보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적고 보수적인 성향의 관람객들과 지역에서 미술관이 기능하는 과정들을 나눌 때, 본인이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안고 있던 고민과 맞닥뜨려 크게 공감하며 참조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무렵까지 테이트모던 신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숙박 장소를 마련해야 했다. 테이트모던이 위치한 런던 템스 강 남쪽 뱅크사이드는 이제 가장 변화한 지역 중 하나로, 프로그램 기간이 여름 성수기 중인데다 해당 지역의 호텔 숙박비는 지원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 보니, 참가자들은 도보 3분 거리의 호텔에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떨어진 동네에서의 에어비앤비까지 다양한 형태로 거처를 마련했다. 테이트 인텐시브팀은 참가자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크라상과 커피를 준비해주었고, 늦는 사람 하나 없이 매일 아침 첫 시간을 열 수 있었다. 모든 시간이 자율성에 기반했지만, 프로그램과 참가자가 서로 존중하고 한 팀을 이뤄 다같이 완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갔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16년 테이트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소규모 국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주제별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여러 가지 시선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스냅들의

유연하고 밀도있는 진행,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 마련으로 거의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테이트는 일주일간의 워크숍 종료 후에도 참여자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해주었고, 참가자들도 이에 부응해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을 즐거이 홍보하고 있다. 어떤 참가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두고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고 표현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본 프로그램의 오픈콜을 본 순간부터 운이 따른 것 같다.

한국 큐레이터로서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얻었을 뿐 아니라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니, 아르코가 테이트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원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비엔날레 운영진, 소규모 신생 기관 디렉터, 기관 홍보담당자, 갤러리스트, 독립큐레이터는 물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기관 큐레이터에게도 5일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참여해볼 만한 기회일듯 하다.

김윤서
몸으로 부대끼는 조각과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술학을 공부했고, 마이클 애셔(Michael Asher)의 미술 프로젝트로 제도비판의 의미 확장에 관한 석사 논문을 썼다. 일상생활에서 동시대미술의 실천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읽고 쓰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경기아트프로젝트 <경기잡가>, 한국·독일 현대미술교류전 <아이러니 & 아이디얼리즘>을 공동기획하였다. 전시의 형식보다는 텍스트로 기능하는 기획을 고민하고 있다.

소규모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짧은 에세이

웨일리아트(대만)

2016년 8월

신이피

지난 2016년 여름 시즌에 타이페이의 웨일리 아트(Waley Art)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개인적으로 그 시기에 제주도 ‘섬’의 신화, 특히 여성과 관련된 설화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영상작업이 마무리 단계였던 때였다. 우연히 나의 리서치 과정을 알고 계시던 큐레이터 한 분이 리서치 활동으로 타이페이에 다녀오신 후 웨일리 아트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었다. 타이완이라는 섬나라에 대한 흥미와 타이페이 아트씬에 대한 관심이 이 레지던시에 지원하게 된 동기다. 웨일리아트는 타이페이의 완화라는 구시가지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15평 정도 면적의 지하 한 층과 6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타이페이의 80년대 주택건물을 전시공간과 레지던시 생활공간, 사무실 등으로 개조한 곳이다. 웨일리아트 인터넷 페이지에 레지던시 소개가 있었고 내가 지원할 당시에 어플라이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디렉터에게 이메일로 어플라이 동기와 포트폴리오, 레지던시 기간 중의 작업계획에 대한 간략한 텍스트를 보내고 선정되었으며 기간을 협의하여 스케줄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때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경쟁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
실험적이거나 다른 문화의 작가를 환영하는 것으로 같았다.
소규모 레지던시는 현지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은 것이
특징인 것 같다. 동시에 장점은 정해진 지원사항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작가의 재량이나 현지의 컨디션에 따라
작업하는 데 많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의 웨일리아트 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 사전에 약속된 지원사항은 생활공간과 개인전을 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지원이었으나, 실제로는 전시에 사용한
프로젝터 2대, 설치 어시스트, 엽서 홍보물 제작, 우편물
발송, 현지어 전시 서문 등 전시에 필요한 많은 서포트를
받게 되었다.

또한 레지던시 기간 동안 웨일리 아트에 방문했던 대만
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 국립대학의 교수 등의 소개로
아티스트 토크와 영상 아카이브 인터뷰 등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웨일리 아트를 가기 전에는 개인작업을 위한 리서치,
영상작업의 촬영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비록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현지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고 개인작업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디렉터, 큐레이터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예술공간, 작가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기에 작가 소개, 전시 소개 등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정해진 지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프랑스의 씨떼 데 자르, 라 쎬큐의 레지던시와
한국의 청주 창작스튜디오, 광주 바림, 청주 퍼블릭아트,
제주 아트세닉, 제주도 좋아 등의 레지던시 경험이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레지던시들은 각각 다양한
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디렉터의 성향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방침, 지원사항, 요구하는
최종 결과물들이 달랐다. 소규모 레지던시들은 비교적
단기간의 프로그램들이었고 조금은 타이트 한 일정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후에, 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너무 다른 주제의 작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때도
있었고 하나의 작업을 오랜시간 매진하여 심도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자문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작업들을 관통하는 나만의 시각이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소규모 레지던시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작가, 큐레이터, 미술 관계자 등과 교류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로 인해 내 작업에 대한 다른 해석, 다른 분야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 등을 관찰하고 레지던시 기간 동안 리서치한 주제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도 있다. 약간의 경험에 의한 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멘트는,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인터넷 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소규모 레지던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메일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어플라이 기간이 아니거나, 아예 없더라도 관심있는 곳이 있으면 작가 스테이트먼트, 포트폴리오를 메일로 보내고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의 작업 주제나 성향, 미디엄에 따라 시기적절한 프로젝트의 기획, 추천이나 소개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 같다.

신이피
유럽연합고등영상원(École européenne
supérieure de l'image)에서 미디어아트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주로 영상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설치작업을 한다. 프랑스, 세네갈,
타이완, 일본, 한국 등에서 주요 그룹전에 참여
활동하였다.

화랑 없이 작품 유통하기
2017 작가미술장터
기관 이용하기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의 현주소

작품 유통

DISTRIBUTION

화랑 없이 작품 유통하기

내 작품을 어떻게 팔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선보일 수 있을까? 갤러리나 미술관, 옥션에 다가가서기가 너무 막막하다면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들은 공간을 운영하며 전시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꾸린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목적과 방식으로 작품을 유통시킨다.

취미가

[위치]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길 96, 101, 201호
[운영진] 권순우, 돈선필, 김동희, 박현정, 황아람
[규모] 1, 2층 합산 36평



공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층은 주로 작가들의 작품과 굿즈, 소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으로, 수~금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전시, 토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에서 활동하는 프로젝트 기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나요?

정금형의 <정금형의 배달 서비스>는 정금형 작가가 <퍼폼 2016>때 제작한 포스터를 직접 배달하는 퍼포먼스 프로젝트였습니다. 참여 관객은 포스터가 배달되는 짧은 순간에 퍼포머와 관객의 역할을 동시에 체험하게 되죠. <역할 part>는 콰이브 작가의 <면대면> 시리즈의 테스트 버전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작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작업의 연장선에서 취미가의 공간과 작가의 눈을 통해 본 풍경이 교차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정태 작가의 개인전 <PICO>는 VR장치를 이용해 작가가 가공한 공간에서 작가의 평면 작업을 체험해보는 전시입니다. 페인터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시각'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게임과 신체를 통해 이야기하죠. 71EH의 <From Glaciers to Palm Trees>는 디자이너 양지은의 기획으로 진행된, 배민기 디자이너와 김정태 사진가의 포스터 제작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돈선필 작가가 주가 되어 참여자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피규어'라는 독특한 사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 <피규어Table>도 진행했습니다.

공간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었나요? 공간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나요?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2층 공간은 올해 7월부터 개관해서 운영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작가와 작품에 관심을 두며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아쉬움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판매를 통해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미술을 향유하는 방식이 넓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주로 다루는 매체, 작가군이 있는지, 혹은 선호하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매체와 관계없이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판매 방식이 까다로운 작업의 유통에 대해서도 작가들과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미술품이 고가의 사치품이라는 인식보다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유통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려면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작품 전시나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절차를 소개해 주세요.

시즌별로 작가군을 선정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술주간에서 진행되는 <취미관> 참여 작가들의 작품 위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취미가와 판매 작품에 대해 논의한 후 입고확인서/작품판매협약서를 작성 후에 판매가 진행됩니다. 취미가 1층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고 취미가 웹사이트(www.taste-house.com)의 카탈로그를 통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통구조를 새로이 만드신지, 혹은 미술품의 구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술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가격대나 가벼운 구매 방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미술 현장의 수많은 전시, 프로젝트와 연동해 운영하는 유통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트 페어, 미술관, 갤러리, 비엔날레, 미술공간이 각자의 영역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취미가에서는 전시를 통해 보았던 작품이나 그 일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오는 10월 <취미관>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대 미술가의 작품과 물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간의 사업 방향, 혹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 10월 미술주간에 첫선을 보이는 취미가의 <취미관>을 매해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술품 유통의 방식이 확장되길 바랍니다. 또한 미술품 유통과 관련하여, 전시와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지금보다 더 활성화된 규모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퍼폼플레이스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53-77, 지하 1층

[운영진] 김우현, 조의주(공동대표), 송지현(기획)

[규모] 20평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셨나요?

지난 8월 5일, 합정지구에서 개최될 전시를 위한 사전 상영회 <모니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출품될 영상 작품을 전시에 앞서 점검하는 자리였죠. 권세정, 김우용, 임영주, 최윤 작가가 참여해서 작품의 일부 및 작품과 연관된 실험을 작가 당 20분 이내로 상영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굿푸드, 굿무드, 굿레스토랑>을 선보였습니다. 고우, 신관수, 정명우, 제이로 이루어진 '모범음식점'팀의 45분짜리 공연이었죠. 이 퍼포먼스는 즉흥적 소리나 행동 같은 공연 상황의 우연적인 요소들로 채워졌습니다.

공간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었나요? 공간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나요?

퍼폼플레이스의 시작은 <퍼폼 2016>입니다. <퍼폼 2016>은 비물질 시각예술 작품이 거래되는 메타-마켓을 실험하는 행사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6년 12월 우정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행사로 비물질 예술의 교환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일시적으로 던졌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퍼폼플레이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간기반예술 관련 플랫폼들은 대부분 축제의 형태로 기획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단발적인 행사를 넘어 비물질 시각예술에 대한 교환가치를 구체적, 장기적으로 고민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퍼폼플레이스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공간에서 주로 다루는 매체, 작가군이 있는지, 혹은 선호하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영상, 퍼포먼스 등 시간 기반 예술을 다룹니다.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려면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작품전시나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절차를 소개해 주세요.

올해 9~10월 사이 퍼폼 공식 홈페이지를 열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작품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거나, 퍼폼의 이메일(performplace.info@gmail.com) 혹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퍼폼 오픈콜 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기반예술, 다시 말해 작품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작품이 유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아닌, 이미 완결된 형태의 작품이어야 합니다. 전시(제시)보다는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발표된 작품일수록 좋으며, 작품과 관련된 기록물 크레딧이 정확해야 합니다. 영상작품의 경우, 설치를 동반하는 영상이라면 그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매뉴얼이 있거나, 영상만을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퍼폼플레이스 오픈콜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폼플레이스 운영방침 (요약)

1. '퍼폼플레이스'와 '작가'는 "오픈콜"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양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지원 작품은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3. 작품은 판매 완료 후 90일 이내 시연해야 한다.
4. '퍼폼플레이스'는 작품의 홍보와 판매에 책임을 다한다.
- 4-1 '작가'는 작품 홍보를 위한 자료를 '퍼폼플레이스'에게 제공한다.
- 4-2 홍보에 포함되는 모든 이미지와 글에 대한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한다. 또한 '퍼폼플레이스'는 웹사이트, 제시 및 판매 관련 인쇄물을 포함한 홍보용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 4-3 작품의 번역, 출판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작가' 및 '퍼폼플레이스'에 귀속한다.
5. 지원 작품들은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우선 노출 시키며 SNS와 연계하여 홍보한다.
6. 오픈콜 지원 작품 중 일부는 매년 '퍼폼'이 진행하는 '퍼포먼스 아트마켓' 행사에 초대한다.
7. 작품 판매가는 1회 공연, 상영을 기준으로 '작가'가 책정한다.
8. '퍼폼플레이스'는 제시, 판매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작가'의 주장이나 의사를 존중한다.
9. '작가'는 퍼폼플레이스 시설을 기존 시설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력과 기타 시설 등을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다.
10. "오픈콜" 지원 작품을 지원서에 작성된 구성 내용에서 20% 이상 변경될 경우, '퍼폼플레이스'는 작품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작품 전시나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절차는 이렇습니다.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섭외와 오픈콜을 거쳐, 제안 작품을 받고 나면, 작가와 미팅을 합니다. 작가와 퍼폼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법이 맞으면 우선적으로 퍼폼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시간기반예술품을 판매합니다. 이 판매는 방법론적으로 상영, 퍼포먼스 행사에 가깝습니다. 시간기반예술품 작품은 사물을 소유하는 형태보다 작품이 재현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곧 작품 소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작가와 충분한 조율 후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홍보합니다. 아마도 공연 티켓팅과 같은 형태로 보일거라 추측이 됩니다. 작품 판매가 완료되면 3개월 안에 퍼폼플레이스에서 작품을 시연합니다. 작품 시연 이후, 작품만 별도로 판매하는 방식을 퍼폼 운영진과 고민하고 매뉴얼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퍼폼 운영진이 프로모션하여 작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술 작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통 구조를 새로이 만드는지, 혹은 미술품의 구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화와 조각 등 기존의 매체에서 벗어난 시간기반예술품, 좁은 범위로 퍼포먼스, 영상은 아직 고정된 유통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유통 및 판매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퍼폼 2017>에서는 퍼포먼스의 유통 구조와 판매를 위한 방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고 방법을 살펴보기 위한 세미나 자리를 마련합니다. 동시에 퍼포먼스 작품을 보여주며 각 작품별 판매 방식을 작가들과 상의하여 마련 중입니다. 이 행사 안에서 퍼폼 운영진과 참여 작가들이 고민한 퍼포먼스 장르 작품 판매 방식을 관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기업, 공공관에 홍보하여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공간의 사업 방향, 혹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물질 시각예술에 장기적 수익 모델 및 교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10월 사이에 열릴 예정인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기반예술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퍼폼 2017>행사를 진행합니다. 11월에 앞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10월 중순부터 퍼폼플레이스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는데, 며칠 동안 이 리허설을 공개하여 관객들이 찾아와 볼 수 있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퍼폼 2017> 행사 기간 중 퍼폼플레이스에서는 김정모 작가의 "재난 미술프로젝트"가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기반예술품을 통해 수익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공으로서든 실패로서든 구체적인 경험을 누적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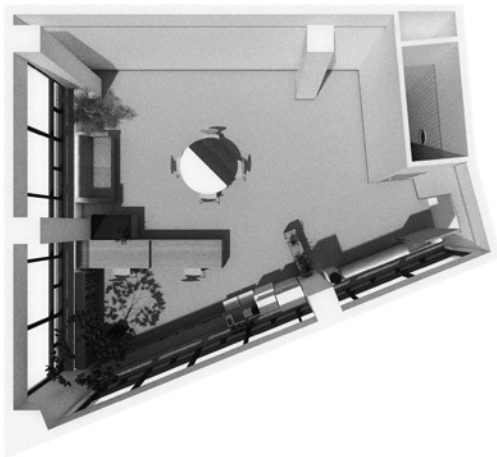
원룸 ONEROOM

[위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0길 24

[운영진] 송하영, 최조훈

공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룸ONEROOM은 을지로에 위치한 전시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 5층에서 미술 전시와 디자인 도서 스터디클럽(신인아 기획), 독립출판 글쓰기 모임(현실탐구단), 다큐멘터리 상영(최지현 기획), 영상 작품 상영 및 아카이브(김신재 기획) 등을 꾸리며, 비정기적으로 전시가 진행되는 기간만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기간에는 전시와 별개로 디자이너, 작가들의 상품과 도서를 함께 판매합니다. 운영자가 직접 기획하는 전시 이외 프로그램은 전부 외부 협력 기획자들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었나요? 공간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나요?

송하영은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공부 중이고, 최조훈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독립하여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공통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하던 중에 이 공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를 통해 작품 유통이 가능한지 실험해보고자 숍의 형태를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숍과 전시 공간인 동시에 두 사람의 작업실 혹은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공간에서 주로 다루는 매체, 작가군이 있는지, 혹은 선호하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다루는 매체나 작가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전시를 보고 흥미가 생기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반대로 제안이 오는 경우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작가들이 이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려면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작품전시나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절차를 소개해 주세요.

전시는 이메일(info@oneroom.pe.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전시 기간 중 작품 판매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다만 판매 같은 경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집기 등을 함께 제작해 진행합니다. 따라서 판매 상품은 원룸에서 직접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에서 제안하고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상품 형태에 대해 논의 후 판매를 진행합니다.

미술 작품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통구조를 새로이 만드신는지, 혹은 미술품의 구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은 유통구조를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유통 구조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시 같은 형태가 미술품 구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룸은 구매자가 만족하여 작품을 구매하고, 작가가 작품의 형태나 매체를 가리지 않고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공간의 사업 방향, 혹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승아, 임석호 작가의 2인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후에 식물상점의 숍 겸 전시, 박승혁 작가의 개인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작가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들을 소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 동안 판매 역시 이뤄지며, 당분간은 지금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 작가미술장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작가들의 판로를 개척, 지원하고 일반 국민 또한 부담 없는 금액으로 미술을 즐기는 가운데 미술품 소장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작가미술장터 사업을 마련해, 3회째 이어오고 있다. 2017년 연말까지 다양한 컨셉의 17개 장터가 준비되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미술품 유통 자생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해 볼 수 있다.

햇썸머 장터(6~8월)

날짜	장터명	장소
6월 23일 ~ 7월 2일	극동예술연합 〈유니온 아트페어 2017 ART + Plus X〉	인사1길
1회: 7월 1일 ~ 2일		LAYER 57
2회: 7월 29일 ~ 30일	〈그림도시S#2〉	비온드 가라지
3회: 10월 28일 ~ 29일		우사단로 & 해방촌 & 연남동/연희동

남만가을 장터(9~11월)

날짜	장터명	장소
9월 2일 ~ 11월 11일 (매주 토요일)	(유)빛고을아우라 〈아우라 인 대인아시장〉	대인시장 일원
9월 25일 ~ 10월 10일	스캇성수기획위원회 〈스캇성수〉	S-팩토리
10월 13일 ~ 11월 10일 (매주 월요일 휴관)	취미가 〈취미관〉	취미가
10월 13일 ~ 31일	베어스데일 〈Art at Home 예술이 가득한 집〉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광주점

10월 14일 ~ 22일	이대일연구소 〈연희동 아트페어: Becoming a Collector〉	VOSTOK
11월 1일 ~ 5일	퍼퓸 〈퍼퓸 2017〉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아트선재센터, 갤러리 호아드
10월 18일 ~ 22일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P.P.A.M—Fun Fun한 미술장터〉	인터파크 블루스퀘어 네모
11월 중	리사익(Riverside Express) 〈Pack-F/W 2017〉	무대륙 외
10월 19일 ~ 11월 1일	대구현대미술가협회 〈Buy, 예술가의 방〉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대구점
10월 24일 ~ 11월 5일	오픈스페이스 배 〈open to you: art market〉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센텀시티점
10월 28일 ~ 11월 5일	동해청년작가회 〈동해아트페어, 별, 바람 그리고 바다〉	빈집갤러리 외
10월 27일 ~ 11월 5일	화이트테이블예술인협동조합 〈화이트테이블 아트페어〉	인터파크 블루스퀘어 네모
11월 11일 ~ 15일	남서울예술인마을(SSAV) 〈블라인드 데이트〉	스페이스 월랑앤덜링

쿨겨울 장터 (12월)

날짜	장터명	장소
12월 13일 ~ 17일	지금여기 〈The Scrap〉	신설동 일대

기관 이용하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 신장을 위해 2005년 설립한 사업이다. 매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고 이들 작품을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기업 등에 대여·전시하여 미술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공모부문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뉴미디어 및 설치 사진

출품자격

[미술은행] 공고일 이전 개인전 5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작가(국적 관계없음)

[정부미술은행] 공고일 이전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동시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작가(외국 국적 작가인 경우 1년 이상 국내 거주 작가)

응모작품 수

1인/팀 1점

*에디션 있는 작품에 한해 시리즈 응모 가능, 시리즈 5점 이내 응모 권고

응모작품 가격

[미술은행] 5,000만 원/작품 이내

[정부미술은행] 3,000만 원/작품 이내

*구입가격은 미술은행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응모작품 규격

[평면형] 작품의 최장 길이 250cm이내 (정부미술은행의 경우 200cm 이내)

[입체형] 세로1m × 가로1m × 폭2m, 무게 50kg 이내 (부피 2m³ 이내 최장길이 3m 이내)

[설치형] 세로3m × 가로3m × 폭3m, 무게 50kg 이내 (부피 27m³ 이내)

최장길이 3m 이내)

*작품 대여 수요 및 소장품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형작품(20~80호) 중심으로 구입 예정

선정절차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의 작품구입 절차에 따라

작품가치심사위원회, 작품가격평가위원회,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하며, 구입 작품으로 최종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

결과발표

미술은행 홈페이지(www.artbank.go.kr)공지 및 개별 연락

*결과 발표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작가 외 응모자는 작품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 또는 작가와 합의하여 응모해야 하며 작가당 1점만 응모 가능(계약 시 판매권증명서, 작품진위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응모할 작품의 이미지는 액자, 배경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작품

이미지(1mb 이하, jpg파일) 업로드

— 비디오 영상물, 키네틱 작품을 응모하는 경우,

(i) 미술은행 홈페이지(www.artbank.go.kr)에 영상작품의 대표 이미지를 스틸 컷으로 업로드한 후 영상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웹하드(webhard.mmca.go.kr)에 업로드(avi파일만 가능)

(ii) 키네틱 작품 등은 작품 구동을 촬영한 인스톨레이션 영상 업로드
— 작품설치 및 운용 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품과 보존 관리가 어려운 작품 지양

— 복제성(복수)있는 판화 사진 조각 등을 응모할 경우,

(i) 시리즈 작품의 경우 각 작품의 에디션이 모두 동일해야 하며 에디션을 필히 기재해야 함

*선정된 후 구입 작품과 응모작품의 에디션이 불일치 할 경우 구입이 취소 처리 됨

(ii) mono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침

(iii) 작품을 제작하기 전 시연된 작품은 응모 불가

문의

미술은행 02)2188-6185, 6337

정부미술은행 02)2188-6185, 6271, 6337, 6339

서울시립미술관

SeMA 예술가길드

서울시립미술관은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가 길드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작가가 작품을 기반으로 개발한 아트 상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직거래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아트 상품들을 추후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SeMA아트숍에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원자격

- 순수미술, 공예, 사진, 디자인, 건축, 퍼포먼스 등 시각예술 분야 작가
- 기존의(물질/비물질)작업을 토대로 판매 가능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작가

지원내용

- 서울혁신파크 내 SeMA창고에서 쇼케이스 행사 개최
- 시민들에게는 작가와의 직거래를 통해 작가들의 아트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아트상품들은 추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SeMA아트숍과 협의 및 연계 판매 방안 모색
- 행사 기간 중 판매금은 전액 작가에게 귀속
- 아트상품 쇼케이스 공간 무료 제공
- 쇼케이스 공간 조성 지원
- 상품카탈로그 발간
- 쇼케이스 온/오프라인 홍보
- 아트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소정의 지원비 지급

문의

예술가 길드 사업 담당자 yunminhwa@seoul.go.kr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의 현주소

미술품 경매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봐야 한다. 작품을 제작한 작가가 갤러리나 아트페어의 전시를 통해 작품이 거래되는 것을 1차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거래된 작품을 컬렉터 또는 법인 등이 소유한 뒤 매도하거나, 경매 회사로부터 구매했던 작품을 다시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2차 시장이라고 한다. ‘작가 화랑 컬렉터’의 거래 구조를 통해 1차 거래가 형성되고, 그 후 작품이 재차 시장에 나오는 개념이 2차 거래인 것이다. 경매의 진행은 ‘소장자의 위탁—경매회사의 중계—작품의 판매’로 운영된다. 작품을 일정 기간 소유했던 소장자가 작품을 위탁 판매하기 위해 경매회사로 문의하고 그 가운데 시장성이 있고 거래 가능한 작품을 선별한다. 경매는 크게 오프라인/온라인 경매로 이뤄지는데 오프라인 경매의 경우 시장 가치가 높은 유명 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하며 그 중 주요 경매를 ‘메이저 경매’라 한다. 이러한 메이저 경매는 국내 대형 경매 회사별로 연간 4~6회 가량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경매회사의 홍콩시장 진출이 일어나 글로벌 아트마켓의 주요 거점인 홍콩 시장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경매 시스템을 통해 중저가 작품의 거래도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 아트페어인 ‘아트바젤(Art Basel)’과 스위스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글로벌 아트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도 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약 566억 달러(약 63조 원)이다. 세계 시장 규모의 81% 정도는 ‘미국(40%) - 영국(21%) - 중국(20%)’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미술품 경매회사의 규모는 약 221억 달러(약 25조 원)규모이다. 그렇다면 거대 규모의 세계 미술시장 속 한국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6 미술시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 미술시장 작품 거래 금액은 약 3,900억 원이며 그 가운데 미술품 경매회사의 거래 규모는 약 980억 원이다. 국내 경매시장은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양사가 시장의 8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의 경우도 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 등 주요 2~3개 경매회사가 시장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어 국내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 작품들의 경우 단색화 시장의 성장과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 등으로 한국 미술품에 대한 인기가 상승했으나 약 4,000억 원이 채 안 되는 규모는 세계시장에서 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소더비, 크리스티 등 세계적인 경매회사의 주요 세일(SALE)에서 김환기, 이우환, 박서보 등이 고가에 거래되며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경매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작가와 경매회사 간 직접 거래는 주로 일어나지 않는다. 시장 거래 내역이 없거나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직접 위탁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인 경매 시장이 표면적으로 분리된 구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1차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작가의 작품은 결국 시차를 두고 2차 시장의 수요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장에서 활발한 전시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되고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은 향후 2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발생 된다. 이러한 형태의 시장구조가 성장 할 수록 한국 미술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 경매회사들도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주제를 정하고 진행하는 ‘기획경매’를 통해 새로운 시장 흐름에 반응하고 있다. 고가에 거래되는 메이저 경매 외에 기존 경매시장에서 저렴한 금액에 거래되거나, 현재 활동 중인 시장성 있는 젊은 작가의 작품을 소장자로부터 위탁 받아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미술품 경매는 시장 논리에 맞춰 가격이 형성되고 상호 필요에 의해 작품이 거래되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특히 경제적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학계나 미술관, 갤러리 등에서 주목할 만한 발표나 전시가 있을 때 이러한 분위기가 2차 시장에 전달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술품 경매시장은 단순히 위탁자와 구매자 간 ‘수요-공급’ 논리의 차원을 넘어서 미술계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 열린 시장으로서 작품 거래를 원하는 컬렉터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태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예술전문사를
수료했다.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실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서울옥션 미술품경매팀
근현대미술 스페셜리스트/경매사로 재직중이다.

예술인 복지

상생하고 충돌하는 예술활동과 파견사업

복지|WELLFARE

예술인 복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예술인의 복지실현을 위해 출범한 이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해 왔다. 재단에서 예술인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해보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예술인패스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지원자격

-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받은 예술인
-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지원내용

국, 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관람료 할인(30% 내외) 또는 무료 관람 혜택, 생활 속 할인(대학로 맛집 및 카페 등 할인)

접수기간

연중 연시

접수방법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를 통해 신청
발급: 매월 10일, 25일까지의 신청접수 건, 2주후 우편발송 또는 현장수령 가능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28, 0263

예술인패스 홈페이지 artpass.kawf.kr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에 기반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한다.

활동내용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참여기업의 이슈를 진단하고 참여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참여기업을 매개하여 예술적 협업구조(활동)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기획·운영, 성과관리 등을 진행하는 예술인
- 참여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매칭 기업(기관)의 이슈를 진단·매개
- 매칭 기업(기관)·참여예술인들과 예술적 협업 프로젝트 기획·운영(최소 월 10일/30시간 이상)
- 월 1회 월별 활동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여예술인 활동 성과관리 및 활동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빙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 워크숍, 직무교육, 간담회 등 참여

[참여 예술인]

-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되어,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예술인
- 매칭 기업(기관)과 예술적 협업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최소 월 10일/30시간 이상)
- 월 1회 월별 활동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활동 내용 기록(도큐멘테이션, 아카이빙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 워크숍, 간담회 등 참여

[참여기업(기관)]

- 퍼실리테이터 및 참여 예술인과의 매칭이 완료된 기업(기관)으로, 매칭된 퍼실리테이터 및 참여 예술인과 함께 예술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기관

참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일정

2월	예술인 대상 사업설명회
3월	기업, 기관 대상 사업설명회
4월	퍼실리테이터 선정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예술인 파견지원 만남의 광장〉 개최
	우선 매칭 대상 기업·기관 확정
	참여예술인 선정
5월	퍼실리테이터-기업·기관 매칭
	참여예술인 워크숍
	2016년 예술인 파견지원 발대식
	참여예술인-기업·기관 매칭
	매칭 기업·기관별 프로젝트 시작
7월	농협중앙회 연계 기획사업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7~8월	퍼실리테이터 직무교육
8월	퍼실리테이터 간담회
	한국메세나협회 연계 기획사업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기획사업 기업·기관별 프로젝트 시작
9월	기업·기관 방문 모니터링
10월	참여예술인 활동 종료
11월	퍼실리테이터 활동 종료
	공모형 사업 기업 기관별 프로젝트 종료
12월	기획사업 기업·기관별 프로젝트 종료
	2016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 위의 일정은 2016년도 일정 기준으로 세부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예술인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작품별 계약에 따른 단속적인 고용 관계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산재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은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의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가입대상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에서 예술인은 사용자 특정 없이 예술인 스스로 선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예술 활동 시 발생한 상해를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게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중 가입신청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한다.

보험료 및 혜택

예술인은 본인의 평균 보수에 부합하는, 1등급부터 12등급 사이의 보험료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기준은 매년 초 변경될 수 있다)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예술인 산재보험
안내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

* 신청서 제출 전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함

문의

02)3668-0200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의 사회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당해년도 유효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관련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급·지원

누구에게	무엇을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 예술인을 고용한 회사·단체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각 50% 지원
	근로자인 예술인: 월 최대 36,050원
	(국민연금 31,500원 + 고용보험 4,550원)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 월 최대 37,800원 (국민연금 31,500원 + 고용보험 6,300원)
프리랜서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50%
	월 최대 63,000원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

지원제외

— 공공기관,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 소속 예술인은 지원 가능

— 월보수 330만 원(중위소득 200%) 이상 예술인 신청시 사업종료
1개월 전 지원여부 결정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회보험료지원 참고
신청서와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문의

02) 3668-0265, 0261 또는 support@kawf.kr

상생하고 충돌하는 예술활동과 파견사업

생활비를 열심히 벌어야 하지만, 창작 활동을 하려면 모든 시간을 벌이에만 투자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이유로 예술인파견사업에 응모하게 되었다. 첫 해에 그룹 면접이 있었다. 그 때 심사하러 오신 분이, 각자의 예술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 파견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원자들에게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뒤늦은 답을 이 후기에 쓰려 한다.

나는 사회에서 예술 그 자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창작물 자체 보다는 예술적 태도나 시선, 이를테면 관용과 자유, 도전하려는 마음이나 생의 유한, 텅없음에 대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술적 태도를 검증하는 장으로 보면 파견 사업은 좋은 학습장이었다. 이것을 창작 활동이라 하긴 뭣하지만 나와 동료 예술가들이 사안들을 대하고, 아마도 ‘예술적으로’ 생각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겐 중요한 예술 활동이었다. 그래서, 예술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는 좋은 리서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적으로도 개인 작업을

할 시간은 충분할 수 있다. 출퇴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파견 사업은 한 달에 열흘 정도 일하게 된다)

매월 파견사업 보고서를 쓸 때에 이러저러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재단이 혹시 이 파견 사업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실험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기도 했다. 지금 한국 사회 내에서 몇 백의 예술인들이 이리 저리 충돌하고 때로 상생하기도 하는 거대한 그림을 떠올리면 그 희비극 자체가 좋은 소재거리로 느껴진다. 얼마나 의미 있는 자료일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이 장편 소설이라도 하나 써주었으면 하고 희망해 볼 때도 있다)

내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일하게 된 파견 기관은 발달 장애가 있는 작가와 작가 지망생들, 그리고 보호자의 교육과 작업이 전시에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영리 기관이다. 기관 소속의 예술 작업자들은 그들의 보호자들과 팀을 이뤄 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나와 내 주위의 창작자들과 다른 점이었다. 홍보와 스케줄 관리, 교육, 전시되는 작업의 선정까지 보호자나 에이전시가 대행해주는 부분이 부럽기도 했고, 창작물에 대한 사후 책임, 이를테면 스테이트먼트나 향후 계획이 기관 소속 창작자에게서 나오기 쉽지 않으므로 나의 그것과 비교하며 그들이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돕기도 했다. 나로서는 예의 그 예술적 태도로 동료 파견 예술가들, 그리고 파견 기관과 토론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개인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문득 떠올리게 된다. 지난 몇 년간 노동하는 예술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출근하고 있다.

김재민이
설치와 지역 리서치를 병행하고 있는 미술작가로
현재 인천문화재단 우리미술관에 입주해 있다.

시각예술 저작권의 이해
시각예술 분야 저작권 문답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이해
[양식 1] 저작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
[양식 2]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계약 CONTRACT

시각예술 저작권의 이해

작가의 저작권

작가가 갖는 저작권법상 권리

- 작가는 미술품의 창작과 함께 미술품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한다.
-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서 예술가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리이므로, 시각예술 계약 체결 시 저작권 조항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이때 침해자는 범죄자로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퍼포먼스 아트의 경우 작가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할 수 있다.

*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4호

- 퍼포먼스 아트나 미디어 아트의 경우 작가가 영상제작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면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99조 ~ 제101조 참조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제13호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의 본질

- 저작권의 법적 성질은 그 객체가 관념적 무체물이라는 점에서 소유권과 구별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소설책을 예로 들자면, 소설책 자체는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 소설의 내용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된다. 소설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설책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소설책을 양도받은 자에게 귀속되나, 소설의 내용 즉,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한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문화발전에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일반공중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제한된다.

-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한다. 다만,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권 분쟁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변동등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저작인격권

-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권법상 작가에게 인정되는 강력한 권리

공표권

-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 저작자가 저작물을 발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음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이름(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물의

수정·개변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설사 원래의 것보다 개선·변경되는 경우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는 개변은 인정되지 아니함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분리하여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작가에게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설령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에 수반하여 양도되지 않는다.
 — 그러나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1조제2항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 권리(지분권)의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재한다.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전시권

미술, 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혹은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대여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즉 배포권을 가진다. 저작권법 제20조 즉 미술품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제23호
 — 단,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즉 저작자가 판매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포권이 소멸하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이라고 한다.

*따라서 작가는 한번 판매한 미술품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재판매 등 재배포를 하는 경우라도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그러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의 경우 작가가 일단 이를 배포한 이후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작가가 가진다. 저작권법 제21조

*따라서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을 작가가 일단 판매하였다면 작가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미술품의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대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미술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작가가 가진다.

*따라서 매매계약, 위탁매매계약 등 유체물로서의 미술품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하여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작가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정해서 이용허락을 해줄 수 있다.

*작가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 행사의 지역이나 장소를 한정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되며, 작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의 계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이용을 허락받은 자 이외의 다른 사람도 같은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이용을 허락 받은 자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재산권 양도 및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중 일부에 대해 별도로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의 대상을 확정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도록 한다.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main.do

시각예술 분야 저작권 문답

미술작가로 작품을 한 점 판매하였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미술작품을 양도하면 저작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궁금하다.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무체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일컫는데, 이러한 무체재산권도 자신이 창작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유권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의 객체가 물건이라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구별된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소설책을 예로 들자면, 소설책 자체는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 소설의 내용은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소설의 저자가 자신을 방문한 지인에게 소설책을 한 권 선물했을 경우에 저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권의 책에 대한 소유권을 지인에게 이전했을 뿐이다.

작품의 양도와 저작권 양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도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빚대어 보면 쉽게 이해된다. 결국 저작권과 소유권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사이에 두고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는 그 작품이 미술저작물인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이는 회화나 조각과 같은 미술저작물은 작품 자체가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대상인 동시에 창작적 가치(무체물)가 동시에 발현되어 있는 일품제작의 저작물이라서 저작물의 이용을 둘러싸고 양자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회화 한 점을 구입한 자는 그 회화의 가치를 산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엄연히 분리되어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화의 구매자는 회화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작품을 소유한 자의 권리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를 위해서 저작권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기도 한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거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을 전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권한이 제한되는 범위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술작품의 제목을 임의로 변경한다거나 작가의 성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미술작품의 표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양 공표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 저작권법적으로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으로 볼 수 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귀결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소설의 대주제라든지, 음악의 장조 또는 단조의 선택이라든지, 회화 작성에 있어서 붓터치 방식과 같은 것은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유명화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미술작품을 작성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접근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그것이다. 먼저, 접근성은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화실에서 작업을 했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수시로 교환한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접할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도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두 저작물 사이에 어느 정도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해야 하는지는 일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결국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딱히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누적되어온 학설이나 판례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잣대로 삼을 만 하다 하겠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여러 이론 가운데, 미술저작물에 적용될 만한 이론은 ‘저작물의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total concept and feel)’을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외관이론이다. 물론 청중테스트라든지 유형이론이라든지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이론은 여럿이 있고, 미술저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관이론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설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과는 달리 독특한 성격을 가진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술저작물의 컨셉과 느낌에 무게를 두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다.

미술관의 큐레이터다. 공연 연출자는 실연자로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큐레이터가 하는 일도 공연

연출가와 비슷한데 큐레이터도 실연자로 보호가 되는가?

큐레이터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받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재정의 확보, 유물의 보존 및 관리, 자료의 전시, 홍보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자로서 전시회의 기획 및 진행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볼 수 있다. 연극 연출자가 희곡을 해석하여 무대에 올리듯이, 큐레이터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전시될 전시품의 배열, 조명의 위치 선정, 유물이나 미술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자료 작성 등 그 업무의 포괄범위가 연출자의 그것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적으로는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큐레이터가 저작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큐레이터가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실연’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전시품의 배열이나 조명의 명암 등으로 미술저작물이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미술저작물을 예능적인 방법으로 실연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큐레이터의 전시방법 등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그 전시 후 50년간은 다른 제3자가 이와 유사한 전시방법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 큐레이터는 고용계약에 의해 그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작가이다. 광고에 사용할 인물사진을 찍고자 한다. 초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초상권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아니라, 학자들의 논의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실정법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규정에서 찾는다.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초상을 임의로 제작하거나 이를 허락 없이 공표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유명 인물의 사진을 타인이 도용하는 경우나 사진작가가 임의로 초상사진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초상사진에 대해 초상권자와 저작권자인 사진작가가 대립하는 후자의 경우가 문제라고 하겠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므로, 특정 인물을 그린 초상화나 사진작품의 저작권은 그 작품을 창작한 화가 또는 사진작가에게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만을 보호하므로 증명사진이나 제품사진과 같이 피사체를 단순히 필름에 담아서 현상한 사진은 저작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반면, 연예인 화보와 같이 피사체의 포즈와 의상, 배경, 조명, 빛의 노출 정도 등을 연출하여 찍은 사진은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진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사진작가에게 있다고 해서 사진 속 인물의 허락 없이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위탁에 의한 초상화나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화보를 찍을 경우에는, 사업책임자, 사진작가, 사진속 인물이 해당 사진이 이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예술 분야 계약의 이해

계약의 의의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이 체결되면 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부여되고 다른 한 사람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향후 계약이 자신의 권리·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결 여부, 계약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함.

계약서 작성

—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형식이나 길이 등도 묻지 않음. 다만, 구두 계약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상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서 해석

— 계약서 해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된 것을 우선으로 하되, 불일치할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순차적으로 당해 거래의 관행, 사회적 관습에 따라 보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에 의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문구의 사용을 지양해야 하고 꼼꼼히 작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계약의 효력

—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

— 구속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에 의해 종료되지 못하고 위반시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됨

시각예술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의 종류

유형	구체적 내용	
작가	회화, 조각, 서예, 사진, 설치미술(installation art),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에서 창작하는 인력	
예술창작 스태프	작가가 공동창작 형태 외에 작품 제작을 위한 스태프를 고용해 창작할 때 참여하는 인력	
작가 단체	작가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많음	
창작스튜디오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기획자(큐레이터)	미술관, 박물관 등 기관에 소속되거나 독립적으로 전시 등의 기획업에 종사하는 인력	
딜러/갤러리	작가나 컬렉터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위탁 받아 그 미술품을 판매하는 등 미술품 거래의 중개를 담당하는 개인이나 기관	
경매회사	미술품을 작가, 컬렉터, 딜러 등으로부터 위탁 받아 경매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주체	
아트페어	미술품 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복수의 화랑이 참여한 가운데 일정한 공간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행사	
출판사	작가의 미술품을 종이책 또는 디지털 형태로 출판하는 주체	
컬렉터	민간	미술품을 구매하여 소장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	공공기관(건축물 미술작품제도의 주체), 미술은행, 미술관 등
이용자	미술품을 복제, 배포, 전시, 전송, 2차적저작물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관	

작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장 단계	계약 상대방	계약 유형	계약 내용
창작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임주 계약서	작가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기 위하여 창작스튜디오 운영 주체와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예술창작 스테프	도급(고용) 계약서	작품의 대형화 및 제작 방식 다변화로 작가가 공동창작 형태 외에 작품제작 스테프를 고용하여 창작할 때 참여하는 인력과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신작제작의뢰인	신작제작 계약서	작가가 제작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미술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공모전 요강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등을 규정한 공모전 요강의 내용은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작가 단체	가입서	단체가 작성하여 작가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가 많다.
	기획자 (큐레이터)	전시 계약서	주로 전시 주최측이 작가에게 전시를 요청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대관 계약서		기획전시가 아닌 작가가 전시 공간을 대관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매매 계약서		작가가 미술품을 딜러나 갤러리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으로 1차 미술시장의 상당 부분을 구성한다.	
위탁매매 계약서		작가가 미술품 판매를 갤러리·딜러에게 위탁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일회성 위탁 또는 장기 위탁 모두 가능하며, 갤러리와외의 관계에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관계를 설정하는 형태도 있다.	
딜러 / 갤러리	대여 계약서	작가가 임차인·임차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전속 계약서	연예기획사에 의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처럼 갤러리가 작가를 지원하고 작품독점판매권을 보장받거나 전시회 개최를 보장받는 것을 골자로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경매회사	위탁매매 계약서	경매회사가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가 많다. 프리미엄이나 커미션 등 수수료, 운송 및 보험에 대한 책임 등이 약관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작품 판매 최저가, 작품 홍보방식 등은 협상이 가능하다.	
	아트페어	참가신청서	아트페어 주최자가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약관 형태인 경우가 많다.
출판사	계약 또는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작가가 종이책 형태 또는 디지털 형태로 출판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으로 특히 사진작품 출판계 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컬렉터	매매계약서	작가가 미술품을 컬렉터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소비		대여계약서	작가가 임차인·임차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이용자	저작권 양도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	작가가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원하는 이용자와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다. 미술품 상품화 계약이 해당한다.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는 특정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의 기본계약서를 말한다.
-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있어 예술인 복지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유형과 특징

매매계약

- 미술품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계약
- 작가가 갤러리나 딜러와 같은 중개상 또는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기관, 개인 컬렉터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해당

위탁매매계약

- 위탁매매: 중개상인 갤러리나 딜러가 고객인 작가 등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행위
 - * 위탁매매란 위탁자의 계산으로 위탁매매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미술품의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해당 거래 행위의 결과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인 작가에 귀속한다.

- 작가가 작품의 판매를 갤러리나 딜러에게 맡기는 경우 그 법률관계는 중개계약이 될 수도 있고 위탁매매계약이 될 수도 있다.

* 갤러리나 딜러가 작가와 구매자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작품 판매자는 작가가 되는 경우 작가와 갤러리나 딜러 사이의 계약은 중개계약인 반면, 갤러리나 딜러가 작품 판매자로 전면에 나서는 경우 그것은 위탁매매계약이 된다.

전시계약

- 주로 전시 주최 측이 작가에게 전시를 요청하는 형태로, 전시 주최 측이 신작 제작을 의뢰한 후 전시를 하는 경우와 기존의 작품을 대여하여 전시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 작가가 전시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전시 주최 측이 일정 금액의 기획비 또는 사례비를 작가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대여계약

- 작가가 임차인·임차기관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정 기간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임차인·임차기관은 미술품의 대여료를 대여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체로 기존의 작품을 대여할 때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부, 국가기관, 미술관이나 기업, 개인 등이 전시나 임시 소장, 감상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
- 대여 기간에 따라 임시대여와 영구대여가 있다.

신작제작계약

- 작가가 제작의뢰자의 주문을 받아 미술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이 제작의뢰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창작자에 귀속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이 작가에게 귀속하는 경우 제작 완료 이후 일정 기간의 전시를 거친 후 해당 미술품이 작가에게 반환되거나 해당 미술품의 소유권이 제작의뢰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의 기본 형식

제목 아래 일련번호로 계약의 목적, 기간, 당사자 권리 의무, 계약불이행의 경우, 불이행 시 처리방안, 손해배상 범위, 분쟁 발생 시 관할 등을 기재하고 계약체결일과 당사자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계약서의 제목 확정

약정서, 합의서 등의 제목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제목은 해당 계약서의 성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 조항의 검토

통상적으로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시작된다. 계약서 해석에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체의 해석 기준으로서 목적 조항에 유념해야 한다.

계약 용어의 사용

- 하나의 특정한 개념은 계약서상에서 일관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정의 조항을 넣는 것이 권장되며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구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쉬우면서도 명확한 용어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 당사자의 표시

- 계약 당사자의 표시는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확정하는 의미이므로, 계약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명칭, 법인의 주소, 대표자 이름을 기재한다. 당사자의 특징은 계약서의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든 계약서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계약의 확정 행위

-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들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를 자필로 직접 쓰는 것을 서명(署名)이라 하며, 기명(記名)은 인장,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프린트, 타인의 대리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서와 간인

-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우 간인(間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삽입되거나 바뀌치기 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간인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하다.

표준 계약서의 구성요소

계약의 목적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계약의 대상

—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저작물의 제호, 종류 등)을 특정하고,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것인지(이용허락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합의하는 규정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합의함

양도 범위

- 저작권법(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제외하고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저작권 양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양도 대상인 권리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작성 필요

양도 / 이용허락 기간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기간은 해당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양도인·양수인 / 권리자·이용자의 의무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협상 과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표준계약서 상 권리·의무를 추가하거나 수정·변경 할 수 있음
*저작권 양도 후 제3자에게 재양도 또는 이용허락 금지, 양도 또는 이용허락 비용 지급 등

확인 및 보증 조항

- 저작권재산권 양도 계약서의 경우, 양도인이 대상저작물을 양도하기 전에 양도인의 저작권재산권의 보유, 대상저작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규정
- 이용허락 계약서의 경우 권리자의 저작권재산권 보유, 대상저작물의 법적 무결성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

계약내용의 변경

— 해당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바,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사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되, 계약 변경 여부 혹은 변경

— 내용 등 관련한 후일의 다툼을 없애기 위하여 서면이라는 방식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음

계약의 해제

- 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있어야 하는 바,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가 해제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경우 가능
- 또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약정과 무관하게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제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음
- 참고로, 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조항은 천재지변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해제권 행사 조항, 민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제권 행사 조항, 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 등이 있음

비용의 부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계약 당사자 일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도 할 수 있음

분쟁해결

- 조정은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하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은 온라인(www.copyright.or.kr) 또는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7~0108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

비밀유지

계약상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저작권 관련 계약의 경우 대상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적권 중 공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는바, 비밀유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의무임

기타 부속합의

—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여 계약의 흠결이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계약서의 흠결을 보충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당해 흠결 사항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것임

— 부속합의서와 본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당사자의 합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계약의 해석 및 보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준용하고,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기에 민법으로서 해당 계약서를 해석하다는 원칙 규정

계약 효력 발생일

— 본문에서 별도로 해당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체결일이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됨

— 특히 계약의 효력발생시기의 하나인 유효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일자는 계약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바, 이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와 이용허락 계약서 두 종류가 있다. 양도 계약서는 다시 저작권 전부/일부 양도 표준계약서로, 이용허락 계약서는 저작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로 나뉜다. 즉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는 총 4종류가 있는 셈이다. 이중 저작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와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참고용으로 신는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 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대희, 서재권, 『예술과 저작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2008
홍승기, 임상혁,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문화체육관광부, 2014
『예술대학 교·강사를 위한 계약실무 교육 가이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7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의 경우 2014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내용을 따릅니다. 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 4종 전체와 이에 대한 해설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1] 저작권 전부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¹⁾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¹⁾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원
		☐ 정기지급	(예:월) 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년 ____월 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권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的事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
성 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식 2]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 (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함)는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1)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년 --월 --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년 --월 --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_____원
------	-----------------------------	------------------------------	--------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 분할	
		☐ 정기지급	(예: 월) _____ 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 %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이용료 _____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

-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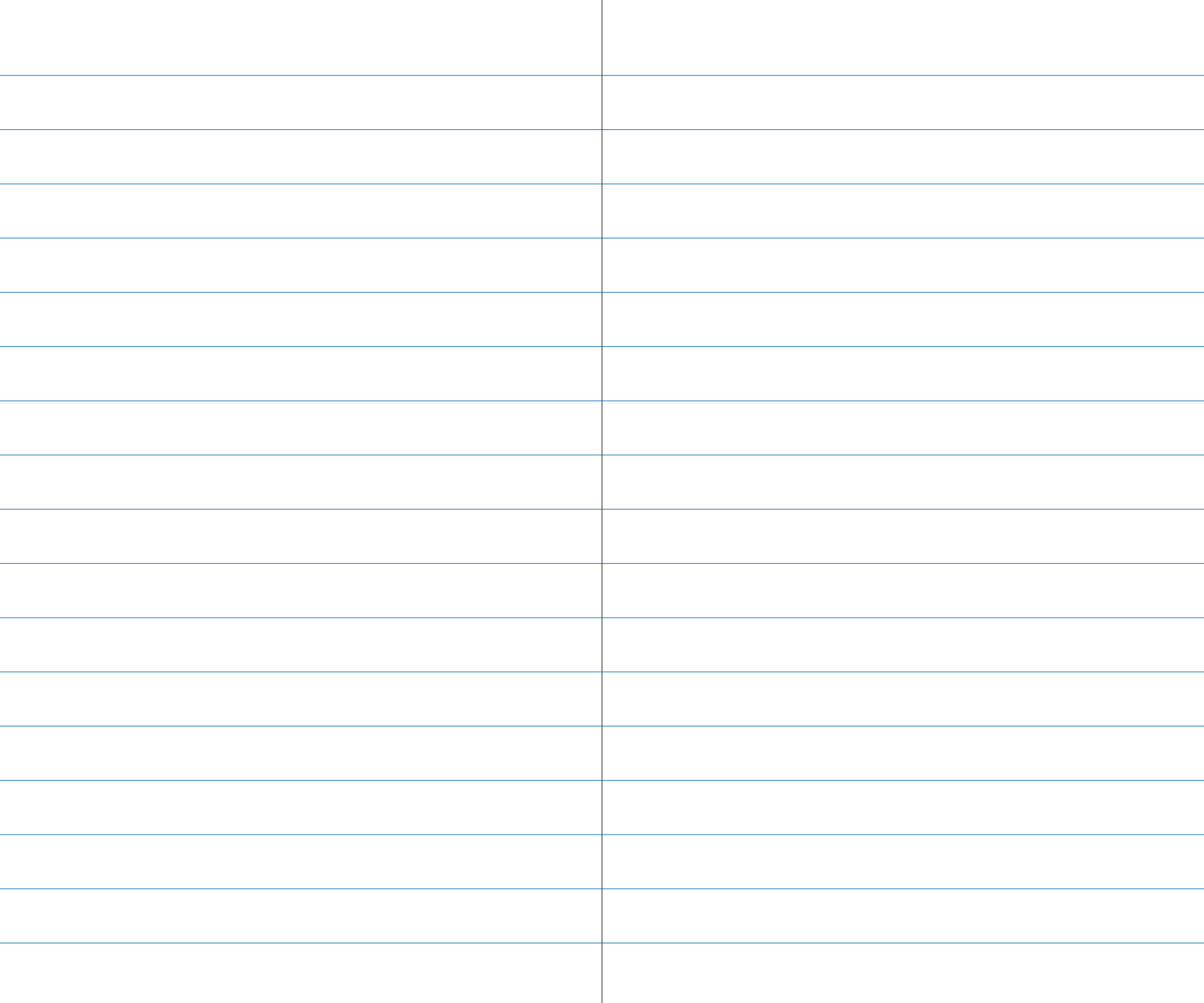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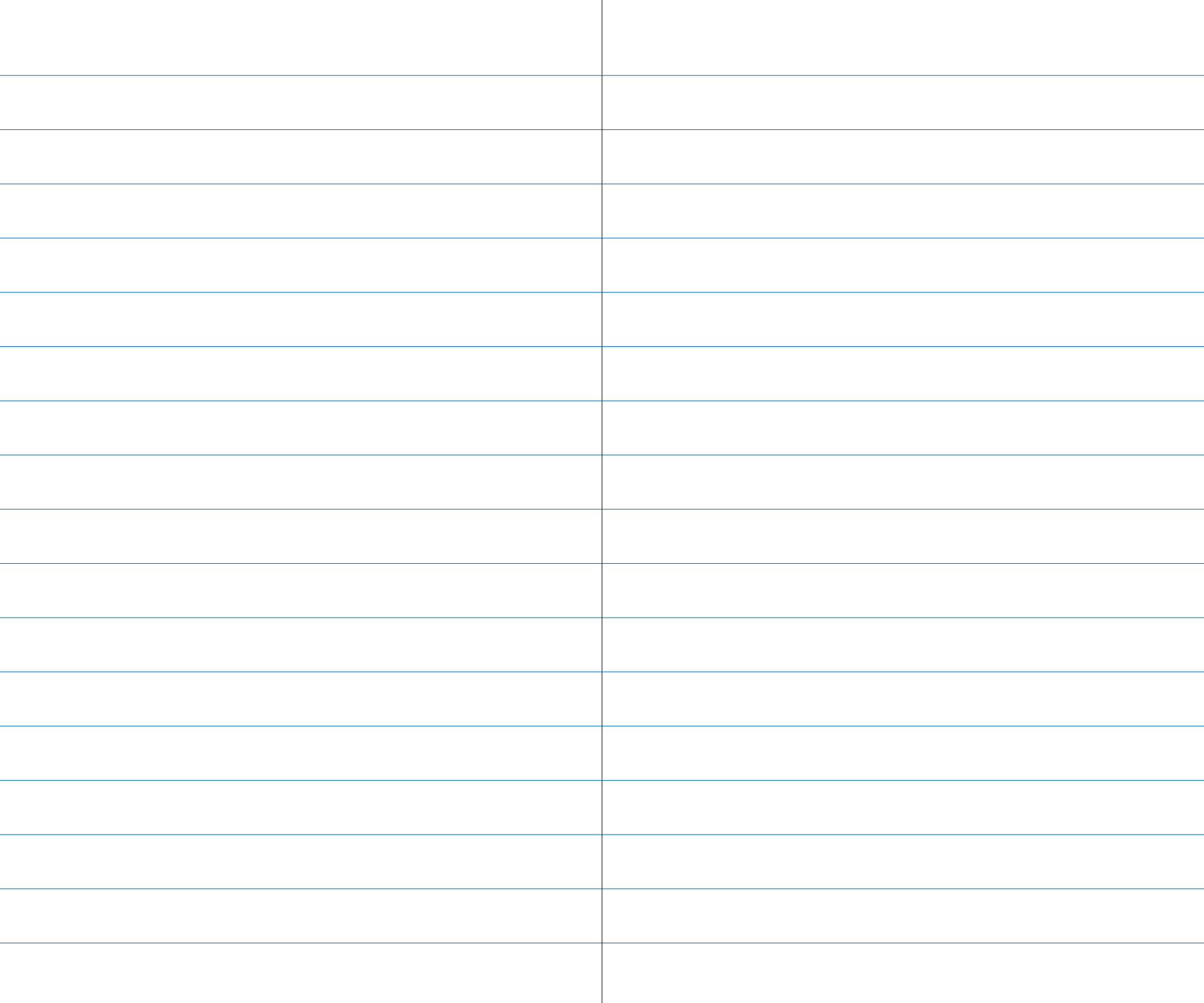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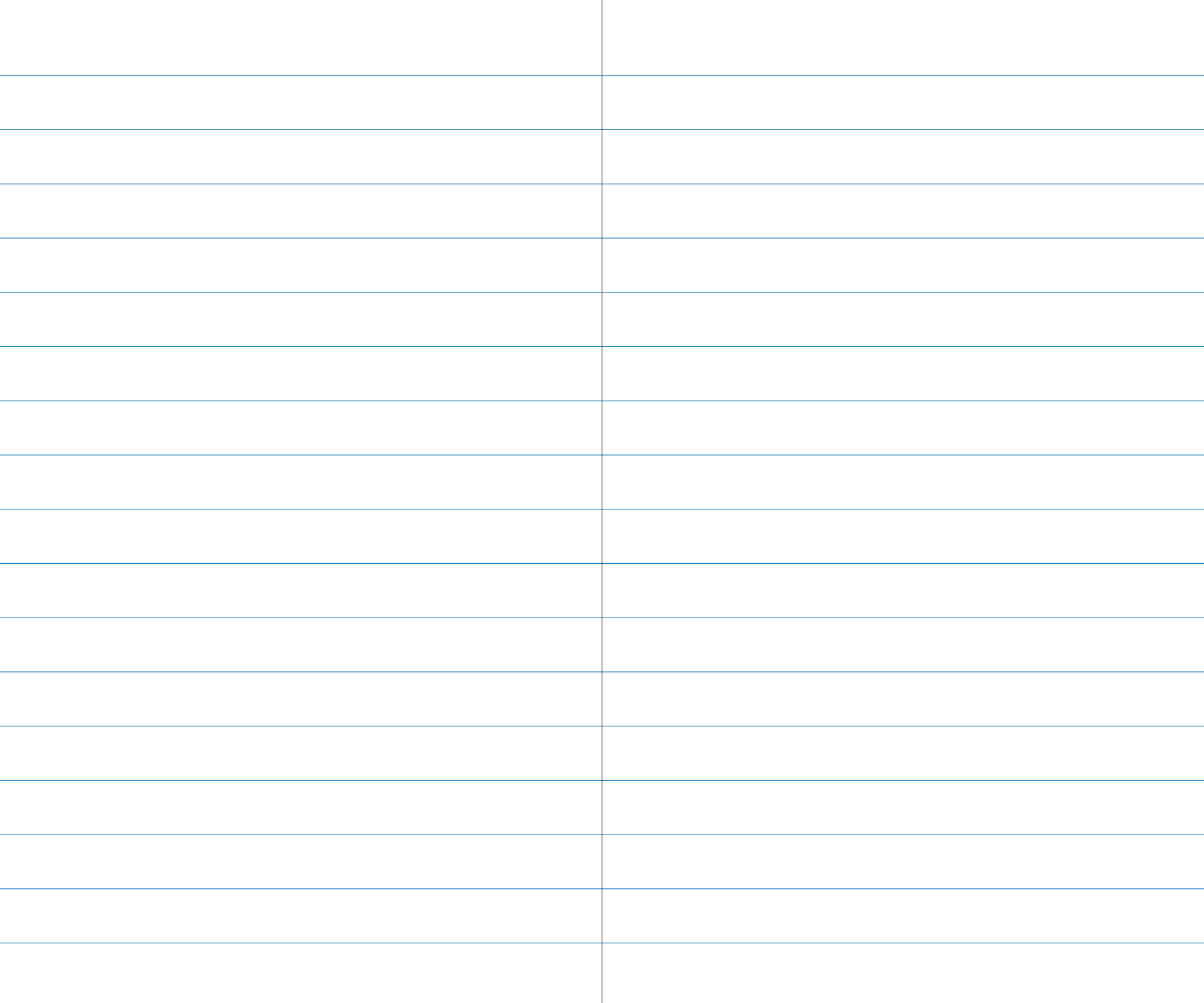
_____년 ____월 ____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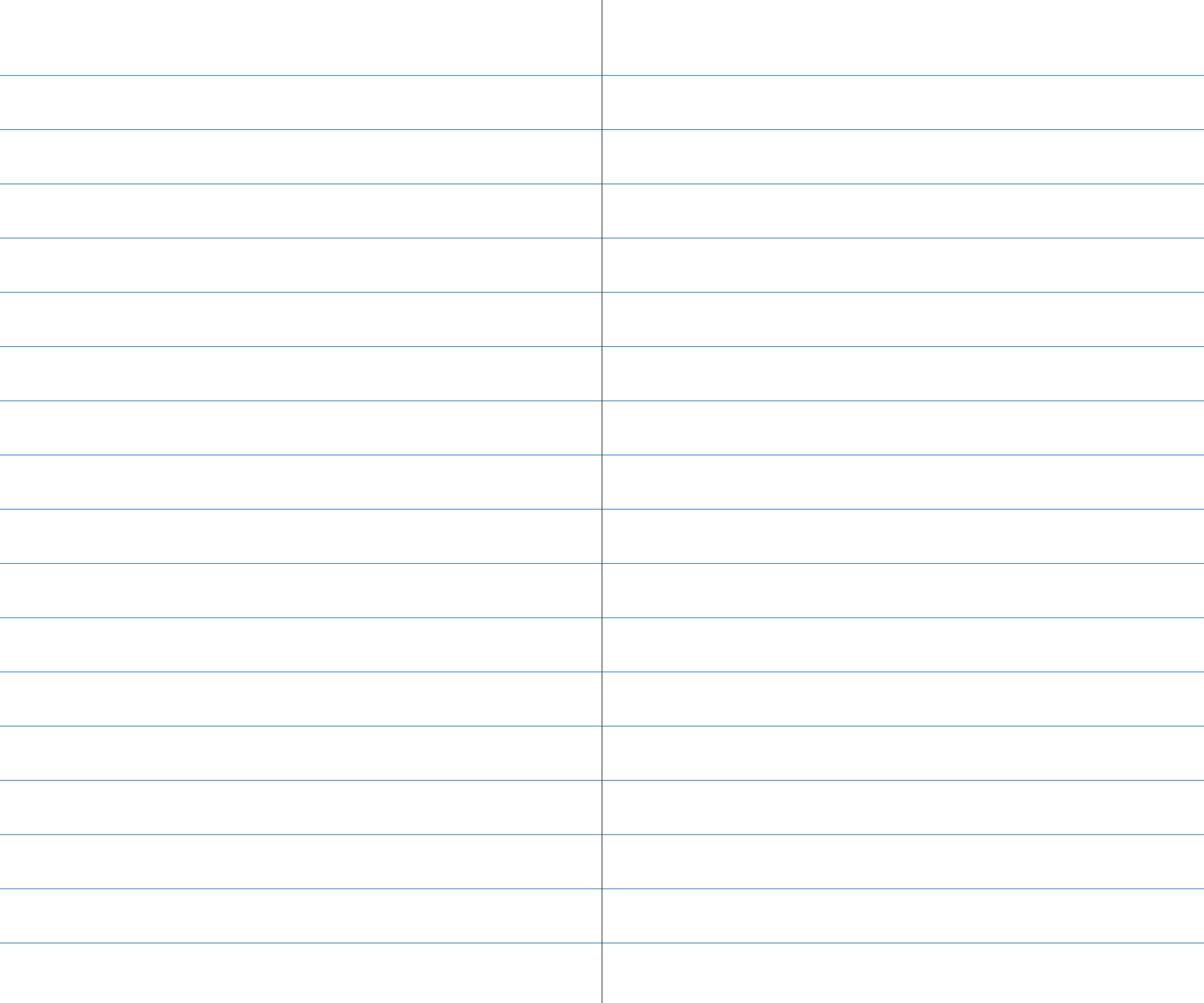
권리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자 :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2017 미술주간
시각예술인을 위한 가이드북

[퍼낸날] 2017년 10월 13일
[발행처] 2017 미술주간
[기획] 임경웅, 호경윤
[편집] 우아름, 이한범
[디자인] 프랙티스
[인쇄] (사)다움복지회

